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7869

2009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태백산맥』에 반영된 문학방언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양 복 순

『태백산맥』에 반영된 문학방언 연구

A Study on Literature-Dialect Reflected in 『Taebacksanmaek』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양 복 순

『태백산맥』에 반영된 문학방언 연구

지도교수 강 희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양 복 순

양복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사 ····· 2

3. 연구대상 및 방법 ····· 3

Ⅱ. 문학방언의 개념과 기능 ····· 7

1. 문학방언의 개념 ····· 7

2. 문학방언의 기능 ····· 7

Ⅲ. 「태백산맥」의 음운론 ····· 16

1. 전남방언의 구획 및 음운체계 ····· 16

2. 움라우트 ····· 18

3. 구개음화 ····· 26

4. 모음상승 ····· 30

5. 전설모음화 ····· 34

6. 원순모음화 ····· 36

7. 단모음화 ····· 37

8. 기타 ····· 38

Ⅳ. 「태백산맥」의 형태론 ····· 41

1. 문법 형태 ····· 41
1.1 조사 ····· 41
1.2 어미 ····· 46
2. 어휘 형태 ····· 58
2.1 자립명사 ····· 58
2.2 의존명사 ····· 63
2.3 대명사 ····· 64
2.4 동사 ····· 66
2.5 형용사 ····· 68
2.6 보조용언 ····· 72
2.7 관형사 ····· 73
2.8 부사 ····· 73

V. 결 론 ····· 77

참 고 문 헌 ····· 80

표 목차

< 표1 > 인물들의 배치도 …… 5
< 표2 > 전라남도의 하위 방언 구획 ……16
< 표3 > 중부방언과 동부 전남 방언의 모음체계 …… 17
< 표4 > 서부 전남방언의 모음체계 …… 17
< 표5 > 표준어의 이중모음 ……17
< 표6 > 전남방언의 이중모음 ……17
< 표7 > 움라우트의 일반적인 규칙 …… 18
< 표8 > 움라우트의 일반적 실현양상 …… 18
< 표9 > 전남방언의 움라우트 실현양상 …… 19
< 표10 > 모음상승 현상 …… 30
< 표11 > 전남방언의 격조사 …… 41
< 표12 > 전남방언의 보조사 …… 44
< 표13 > 전남방언의 상대 높임 체계 …… 47
< 표14 > 전남방언의 대등적 연결어미 ……54
< 표15 > 태백산맥의 종속적 연결어미 ……54
< 표16 > 태백산맥의 보조적 연결어미 ……56
< 표17 > 태백산맥의 선어말 어미 ……57
< 표18 > 태백산맥의 의존명사 …… 63
< 표19 > 태백산맥의 대명사 …… 64
< 표20 > 태백산맥의 보조용언 …… 72

지도 목차

< 지도1 > 우리나라의 지역 방언 …… 1

ABSTRACT

A Study on Literature-Dialect Reflected in 『 Taebaeksanmaek 』

Yang, Bok-Soon
Advisor: Professor Kang, Hui-Su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Taebaeksanmaek>* written by Jo Jeong-Rae, is a novel of realism published in 1980s. It deals with ideological opposition for about five years from one day before Yeosu and Sunchon Uprising in 1948 since the Korean War. It has been extensively read and was adapted into a movie.

The *<Taebaeksanmaek>* reflects dialects of eastern area of Jeollanamdo sincerely, and this study examines phonological and morphological aspects of the literary dialects in a text of the *<Taebaeksanmaek>.*

Chapter 1 of the study introduces the purposes, history of research, subjects and methods and chapter 2 identifies the concept and function of literary dialects. When literary dialects are absorbed into literature, they complete realism in a novel and contribute to configuration of characters and regional identity.

Chapter 3 describes phonological features of Jeonnam dialects in the *<Taebaeksanmaek>*, which include umlaut, palatalization, vowel rising, vowel rounding, monothong vowels and diphthong. It is demonstrated that if umlaut conditions are satisfied in morphemes, that is, uninflected words, Chinese characters, inflected stems and adverbs, their productivity is active and less

umlaut is realized at the boundary of morphemes. It has been known that palatalization began from dialects of Jeollanamdo and Gyeongsangdo and has been gradually expanded to northern area and this study focused on cases of giyeok>jiot, digeot>jiot, and hiot>siot in the *<Taebaeksanmaek>*. For vowel rising, we analysed cases of 'e>i, i>oui, and o>u ' and umlaut was found only within morphemes in <vowel rounding>. Vowel rounding for which ' · ' after a labial consonant of one syllable is changed into 'O' is actively realized in the *<Taebaeksanmaek>*. For the monothong vowels in the *<Taebaeksanmaek>*, cases of /j/ missing, such as 'kamun(kamyon), salmun(salmyon), and tamun(tamyon)' and cases of /w/ missing such as 'moe(muoe), and bara(bawra)' are found.

Chapter 4 categorizes morphological features of Jeonnam dialects in the *<Taebaeksanmaek>* into grammar and vocabulary to describe them efficiently. In an aspect of grammatical morphology, we analyse postpositions and endings in Jeonnam dialects in the *<Taebaeksanmaek>*. The propositions are sub-categorized into case propositions, additive propositions and conjunctive propositions to observe the aspects of realization. For the case propositions except comparative case, there is no special difference between standard language and dialects except a phonological phenomenon. And the following characterizations are found: 'i(iga)/ga' in the subjective case, '-ul/-rul' in the objective case, '-hunti' in the dative case, 'ega' in the genitive case, '-heogo' in the coordinated case, '-heogo/-rang, -manchi/-man, -bodam/-bodum, -mangki/-mangi, -gutten' in the comparative case, and '-a/-ya' in the vocative cas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xcillary words and the following characterizations are found: '-un/-nun' of themes, '-keojung/-keoji of contracting, -halla', '-do of as being expected', '-isa/-sa of emphasis', '-butum of departure from', '-madong' of being respective, 'sseok of similarity', and 'man of exclusiveness'. Connective propositions of '-heogo and -lang' corresponded to 'wa/gwa' of the standard language.

Meanwhile, endings in the *<Taebaeksanmaek>* are categorized into termination ending, connective ending and pre-final ending. In general, the termination ending represents grades of politeness markers and characterization

of politeness markers in Jeonnam dialects is analysed according to grades of formal situations such as ‘heossiyo style, huso style, and haera style’ and infomral situations such as ‘haerau style and hae style’. The connective endings are categorized into equal connective ending, subordinate connective ending and anxcillary connective ending. The equal connective endings in the *<Taebaeksanmaek>* are ‘-eunseo/-eumseo, -siro/-serong’. The subordinate endings are ‘-euimun,-eumsa' of conditioning, ‘-euinikke/-eungkke/-eungke' and '-kandi, and -nirago’ of case and effects, ‘-derakdo, -jimanseodo of concession’, ‘-deungma' of situation, ‘eulago' of objective, ‘-dikki/-daekki' of similarity, and ‘-kekkereum' of contracting. For the anxcillary connective endings, ‘-ah, -ji, -jido, -hake’ of the standard language are characterized into ‘-ya, -dul, -to, and -huny’. For the pre-final endings, ‘-ssi- and -sitt-’ of politness, ‘-deu-’ of recollection, ‘-yatt-, -yeot-’ and ‘-gut-’ of estimation are characterized.

In reference to the morphological vocabulary, this study examines single words and derivative words to identify productive reflection of Jeonnam dialects in the *<Taebaeksanmaek>*. ‘-jil, -meori, -daegari, -eki, -aji, -ari, -akji, -angku, -dangi, -taegi/ -tanggi/ -tanggu, -baegi/-banggi' as noun derivative suffixes having meanings of low standing, ‘-hada, and -kirida’ as verb derivative suffixes, ‘-sirupda, -hada, -upta/ -eitta, -jida, -jigunhada, -jantta’ as adjective derivative suffixes and ‘-ee, -hee, and -ke’ as adverb derivative suffixes demonstrate active productivity through new combinations.

Based on the results above, chapter 5 demonstrates that the *<Taebaeksanmaek>* effectively describes suffering of the commoners and intellectuals under ideological conflicts through use of Jeonnam eastern dial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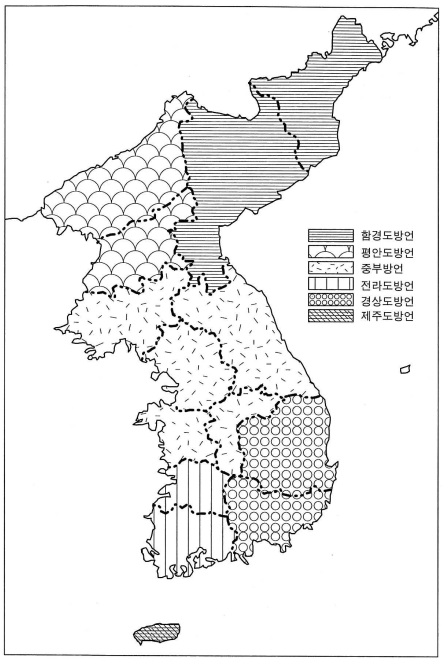
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국어학과 국문학을 잇는 학제간 연구로 <태백산맥>에 반영된 문학방언에 대한 음운론적·형태론적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방언은 원래 하나의 개별 언어가 단일한 기원에서부터 출발하여 세월이 흐름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화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하나의 언어에서 비롯된 방언들이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달리하면서 독자적인 변화를 추구한 탓에 각 지역에 따라 음운, 문법, 어휘 면에서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이기갑 2003: 20-21).

표준어는 특정한 지역-예컨대 수도(首都)-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외의 모든 그 나라의 언어는 방언이 된다. 이를 지역방언(regional dialect)이라고 한다. 언어적 변이는 지역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계층과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도 일어나는데, 이는 사회방언(social dialect)[1] 혹은 계층방언(class dialect)이라고 한다. 그러나 언어적 차이는 지역방언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이라 할 때는 보통 지역 방언만을 가리킨다.



< 지도1 > 우리나라의 지역 방언
(이익섭외 1997: 316)

우리나라의 지역방언은 <지도1>과 같이 등어선(等語線)[2]이 겹치는 곳에 따라 대체로 함경, 평안, 중부, 전라, 경상, 제주 방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표준어에 비해 도외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방언은 사실 국어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

1) 우리나라의 궁중에서 사용했던 궁중어라든가, 산삼을 캐는 채삼꾼들이 사용하는 심마니말, 네티즌이 사용하는 채팅어 혹은 이모티콘과 같이 특정 사회에서만 사용하는 특수어가 해당된다.
2) 음운·문법·어휘의 방언 분포상 경계를 보이는 선

일단 방언은 국어의 어휘 및 음운 변천과정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언어장벽에 가로막혀 언어개신파(言語改新派)가 늦은 지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어형(古語形) 같은 경우 국어사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 셈이다. 방언은 또 지방색이나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유한 정서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작품 속에 작가는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효과를 얻으려하는데 충청도방언을 사용한 이문구의 <관촌수필>, 경상도방언을 사용한 박경리의 <토지>, 제주도 방언을 사용한 현기영의 <순이삼촌> 과 같은 작품이 해당한다. 또한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전남 벌교지역을 배경으로 전남방언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전남의 동부방언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의 언어를 음운론적·형태론적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사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전남방언을 잘 나타내는 문학 텍스트이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과 관련지어 연구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첫째, 전남방언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이다. 전남방언에 관한 조사연구의 출발은 우리나라 전 지역의 방언연구가 그러하듯이 애석하게도 일본인 학자 소창진평(小倉進平: 1882-1944)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1911년에 내한하여 1933년에 출국하기까지 22년간 열성적으로 전국 각 지방의 방언을 조사·수집하고 이를 자료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는데, 1919년에 『朝鮮語敎育硏究會雜誌』에 「全羅南道方言」이라는 글을 실은 바 있고, 1924년에는 『南部朝鮮の方言』이라는 단행본이 간행된 바 있다. 여기에는 음운, 어휘를 각각 1편씩 하였는데,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를 비롯하여 17개 지역을 조사하였다(이돈주 1987: 65).

이후 우리나라 학자들도 점진적으로 전남방언에 관심을 보이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들 중 두드러진 이로는 이돈주(1979, 1987), 이기갑(1986, 1998c), 강희숙(1999, 2005), 김웅배(1993)를 들 수 있다. 이돈주(1979)는 전남방언의 어휘를 전반적으로 조사 연구하였고, (1987)에서는 전남방언의 특징을 음운론적·어휘형태론적·통사론적 양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기갑(1986)의 전남방언의 연구로 하위방언권의 구획을 들 수 있다. 그는 전라남도를 분화하는 등어선 가운데 주된 방향을 남북과 동서의 두 가지로 보았다. 남북 방향의 등어선은 전

남 지역을 동부와 서부로 양분하는 것으로서 그 언어적 특징은 ① 모음체계 ② 유성자음의 탈락과 약화 ③ 체언의 음절말 자음의 단순화 ④ 접미사의 첨가 등이이라 하였고,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등어선은 특히 옛말의 ‘ · ’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기갑(1998c)에서는 전남방언의 상대높임법을 연구하였다. 전남방언의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에 따라 세 개의 등분만을 갖는데, 아주높임과 예사높임이 통합된 형태인 ‘허씨요체’, 예사낮춤에 해당하는 ‘허소체’, 아주낮춤에 해당하는 ‘해라체’가 그것이다. 강희숙(1999)에서는 전남방언에서 전설모음화의 실현 양상을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강희숙(2005)에서는 전남방언과 서울말을 중심으로 고모음화의 실현양상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 김웅배(1993)는 전남방언의 연결어미를 의미기능과 접속관계 표시, 형태통사적 제약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는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방언학적 연구 성과로 다음과 같다. 위평량(2004)은 <태백산맥>과 <혼불>의 언어를 문법 형태적 측면을 중점으로 비교·분석하여 전남방언으로서의 언어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고찰한 바 있다. 강희숙(2005)은 <태백산맥>에 반영된 전남 동부방언의 담화표지 ‘와, 웨, 잉’을 중심으로 한 화용론적 연구를 한 바 있다. 여기서 ‘와, 웨, 잉’은 발화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화자가 일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조하거나 부정적 상황에 대한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청자와의 호응을 바라는 의도로 선택되는 화용상의 장치임을 밝혔다. 권영민(2003)의 『태백산맥다시읽기』에서는 <태백산맥>에 반영된 생소한 전라도 방언을 예문과 함께 싣고 있으며, 이개영(1998)은 <태백산맥>에 반영된 관용표현을 연구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상으로 본 논문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사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필자는 전남방언이 잘 반영된 <태백산맥>의 문학방언과 관련,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음운론적 현상과 형태론적 현상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다. 일찍이 김윤식(1987: 199-220)은 이 작품을 ‘문학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한 신뢰’와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의 두 축이 부여된 소설로서, 우리 문학이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해방 40년의 기간이 필요'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권영민(1995:69)은 소설 <태백산맥>은 1980년대 전환시대 문학의 최대 성과이면서 동시에 분단극복을 지향하는 우리 문학의 정신적 결정체라고 평가 하였다. 5·18 민중항쟁, 6·10 민중항쟁 등 역동적인 80년대와 맞물려 등장한 이 소설은 은폐된 이데올로기의 한 쪽을 드러내 객관화함으로써 분단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놓은 셈이다.

소설<태백산맥>은 벌교라는 자그마한 소읍을 중심으로 270여 명의 등장인물들이 이념의 대립과 다양한 모습으로 불행했던 한 시기를 헤쳐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3] 조정래(1943~)는 전남 승주군 선암사에서 출생하여 광주 서중학교와 서울 보성 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소설의 중심 공간이 된 벌교는 작가 조정래가 유·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곳이다.[4] 이상을 근거로 하여 그의 언어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는 언어형성기에 전라 방언 가운데서도 전라남도 벌교지역 방언을 익혔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엮어간 것으로 보인다.

원고지 1만 5천 7백여 매, 한의 모닥불, 민중의 불꽃, 분단과 전쟁, 전쟁과 분단 등 4부작 10권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은 1983년 9월부터 월간지 〈현대문학〉에 연재되기 시작해 1986년 제1부 3권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데 이어 1987년 제2부 2권이 출간되었고 1988년 제3부 2권, 1989년 제4부 3권이 출간됨으로써 전 10권이 완간되었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을 앞둔 어느날로부터 시작해서 1953년 잔비토벌이 끝나가던 늦가을까지로, 5년에 걸친 긴 비극을 벌교라는 중심공간에 두고 만주, 서울, 부산, 강원도까지 넓혀나갔다가 벌교에서 마무리 짓고 있다.

또한, <태백산맥>은 등장인물들을 여러 가지로 대립시키고 비교하도록 유도하는 갈등의 모티브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지식인 파르티잔[5] 염상진과 우익 행동대장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아우 염상구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겠다. 토지의 소유를 둘

3) 태백산맥 문학기행 위승환 http://www.taebaeksanmaek.com/index1.html
4) 태백산맥 문학기행 위승환 http://www.taebaeksanmaek.com/index1.html
5) '파르티잔(partisan)'은 무장한 전사로서 정규부대의 정식부대원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빨치산이라고도 부른다.

러싼 지주계층과 소작인들의 갈등을 인식한 염상진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주의적 혁명을 꿈꾸는 이념의 신봉자로 변모한다. 반면, 그의 동생 염상구는 형에 대한 자신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반감으로 우익에 가담하여 사회주의자들의 색출과 검거에 혈안이 된다.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염상진의 처절한 주검을 거두는 염상구의 모습을 통하여 혈연적인 화해의 감동적인 장면을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다. 결국 이 두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을 축소해 그려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토착 지주와 거기에 매달려 살아야만 하는 벌교지역 농민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소작인의 관계이다. 소작인들은 광복이후 정부의 토지개혁정책에 크게 기대를 걸었지만 농지개혁은 늦어지고 지주들은 농지를 편법으로 처분하려든다. 울분을 느낀 소작인들은 그런 지주에게 보복을 하지만 세상은 소작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강동식, 강동기, 고두만, 고두일, 김복동, 김종연, 마삼수, 서인출, 오판돌, 유동수, 유 서방, 임 서방, 노 서방, 지필구 등의 소작인들이 벌교지역의 빨치산으로 출현한 배경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작농으로서의 신분적인 제약과 지주들의 횡포 때문에 이들은 자기 땅에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땅에 대한 꿈을 이뤄보지 못하고 공산주의자가 되어 빨치산 투쟁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물의 자리를 권영민(2003: 156)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이념적 성향의 축

김범우

계층적 성향의 축		
	김범준 정하섭 2	김사용 정동현 최익승 윤삼걸 1
	3 염상진 하대치 강동식 소작인들	4 염상구

제1사분면: 지배 계층 +우익사상
제2사분면: 지배 계층 +좌익사상
제3사분면: 피지배계층의 농민 또는 하층민 + 좌익사상
제4사분면: 피지배계층의 농민 또는 하층민 + 우익사상

<표 1> 인물들의 배치도 (권영민 2003: 156)

본 논문에서는 해냄 출판사에서 10권으로 출간된 조정래의『태백산맥』(2004)을 텍스트로 하여 전남방언의 특징을 고찰하려고 한다. 벌교 지역을 주 무대로 삼고 있는 작품<태백산맥>에는 전남방언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본 연구의 초점이 전남방언에 맞춰질 수밖에 없으며 어휘에 대한 조사·연구는 「전남방언사전」(이기갑 외)을 이용하고, 전남방언과 관련된 논문과 저서를 참고하겠다.

또한, 작품 안에서 문학 방언이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태백산맥>에 나타난 방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문보다는 주로 대화적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작품에 드러난 용례를 제시할 때는 단편적인 단어나 어절만 제시하지 않고, 문맥 상황을 제시하여 자연스런 반영을 보도록 한다.

2장에서는 문학방언의 개념이 무엇이며 문학방언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리얼리즘의 측면, 인물의 형상화 측면, 지역 정체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태백산맥>에 반영된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음운론적 특징에는 움라우트, 구개음화, 모음상승, 전설모음화, 원순모음화, 단모음화 현상을 주로 살펴보겠다.

4장에서는 <태백산맥>에 반영된 전남방언의 형태론적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문법 형태적 특징에서는 전남방언에 쓰이는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고, 어휘형태적 특징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전남방언의 어휘를 살펴보겠다.

끝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제언으로 결론을 삼을 것이다.

Ⅱ. 문학방언의 개념과 기능

1. 문학방언의 개념

문학방언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어와 문학어에 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방언이 자연 구어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상어의 범주에 드는 반면, 문학어는 자연 구어의 상태를 넘어서서 비일상성을 추구하는 언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옛날 귀족문학 성향의 기록문학이 일상어와 다른 문학어의 규범과 관습을 따른 반면 평민문학으로서의 구비문학은 일상어의 기반 위에 민중 나름의 문학어를 생산해 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관념이나 윤리와 관련 있는 문학어는 특수한 관습에 빠져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학어의 타성에 대해 삶과 밀착되고 직결되어 있는 일상어가 신선함을 줄 수 있다. 작가는 작품 안에서 이러한 신선함을 얻고자 방언을 수용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가져다가 쓰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그 방언에 관하여 조사하고, 또 그 방언의 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곳에 배치한다. 여기에 감수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방언은 그 의미를 독자가 알아차리지 못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우려를 무릅쓰고 작가는 사실성을 부여하고, 등장인물을 형상화하고 또는 지역색의 효과를 얻기 위해 작품 속에 방언을 사용한다.

이렇게 작가에 의해 재구성되어 작품에 녹아있는 방언은 방언에 대한 우리의 인식 태도를 새롭게 한다. 작가가 쓰는 방언을 통해서 그간 느껴보지 못한 방언에 대한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일상어가 문학어로의 탈바꿈을 하게 된 것이다.

즉, 문학방언이란 작가의 의도 하에 일상어인 방언이 작품에 흡수되면서 작품의 문학성을 배가시켜 진실한 삶을 그려내는 문학 본연의 목적달성을 꾀하는, 문학어의 냄새를 띤 일상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학방언의 기능

여기에서는 문학작품에 쓰인 방언이 그 작품에서 수행하는 문학적 기능에 관하

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대문학의 단계에 이르러 방언은 시와 소설 두 분야에서 아울러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는데, 먼저 시에서 방언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보려고 한다. 시인은 언어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시어는 진부한 일상적인 언어로부터 일탈하여 보다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시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세심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확한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 어휘의 선택범위를 크게 확장시킨다. 그래서 시에서는 표준어 이외에 방언과 외래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 시인이 새로운 시어를 창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언어 형식인 회화적인 기호나 그림까지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방언을 사용함으로서 자신들의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하여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 시인들이 있다. 대표적 시인으로 김영랑과 백석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두 시인들은 각각 전라도 방언과 평안도 방언을 수용하여 작품에서 표현하였다.

전남 강진이 고향인 김영랑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시문학파'로 언어의 조탁과 운율적·수사적 기교에 힘써 시적 아름다움을 이룩한 시인이다. 또한, 그는 방언을 구사함으로서 남도의 서정적이고 여성적인 면면한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하였는데 다음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매 단풍들것네
장광에 골불은 감닙 날러오아
누이는 놀란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니리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보아라
오-매 단풍들것네

-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전문, 『시문학』 1호, 1930.3. -

위 시에서 두드러진 전남 방언 어휘로 경이감과 흥분을 나타내는 감탄사 '오-매'를 보면, 이 감탄사가 詩 전체 분위기와 의미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표준어인 '아-'라는 감탄사에 비할 수 없는 감정을 내포한다. 장창영

(2004b:221-222)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이해를 토대로 하는 이 단어 '오-매'는 자연과 동화 과정을 거쳐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발화된 것으로, '아'와는 달리 양성모음 'ㅗ'와 'ㅐ'의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어짐으로서 시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는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또 연결어미 '아'와 '어'를 동원한 '날러오아'나 '치어다보며'가 음장의 길이를 의식한 기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탄사 '오매' 역시 시인의 전략적인 시어배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시인은 '오매 단풍들것네'를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상황인지를 거쳐 자연과의 동화 상태에 이르고, 마침내 이를 여유롭게 바라보는 경지에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평북 정주가 고향인 백석의 초기 시에는 평안도 방언이 전면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의 시에서 방언은 사물이나 인간을 지칭하는 언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고형진: 2004: 297-298). 그리고 그 방언들은 그 지방 사람이 아니면 그 뜻을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생소하고 낯선데, '여우난곬族'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명절날나는 엄매아배 따라 우리집개는 나를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있는큰집으로 가면
>
> 얼굴에별자국이솜솜난 말수와같이눈도껌벅걸이는 하로에베한필을짠다는 벌하나건너집엔 복숭아나무가많은 新里고무 고무의딸 **李女** 작은**李女**
> 열여섯에 四十이넘은홀아비의 후처가된 포족족하니 성이잘나는 살빛이**매감탕**같은 입술과 젖꼭지는더깜안 예수쟁이마을가까이사는 土山고무 고무의딸**承女** 아들 **承동이**
>
> 六十里라고해서 파랗게뵈이는山을넘어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된 코끝이 빩안 언제나흰옷이 정하든 말끝에설게 눈물을짤때가많은 큰곬고무 고무의딸**洪女** 아들 **洪동이** 작은洪동이
> 배나무접을잘하는 주정을하면 토방돌을뽑는 **오리치**를잘놓는 먼섬에 반디젓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
>
> 이그득히들 할머니할아버지가있는 안간에들 몽여서방안에서는 새옷의내음새가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내음새도나고 끼때의두부와 콩나물과 볶운잔디와고사리와 도야지비게는모두 선득선득하니 찬것들이다.

저녁술을놓은아이들은 외양간섶 밭마당에달린 배나무동산에서
쥐잡이를하고 **숨굴막질**을하고 꼬리잡이를하고 가마타고시집가는노름 말타고장가가는노름을 하고 이렇게 밤이어둡도록 북적하니논다.

밤이깊어가는집안엔 엄매는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웅간한방을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화디의사기방등에 심지를 멫번이나돋구고 홍게닭이멫번이나울어서 조름이오면 아릇목싸움 자리싸움을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그림자가치는 아츰 시누이동세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 국을끄리는 맛있는내음새가 올라올도록잔다

- 「여우난곬族」 전문 -

위의 시는 명절날 여우난골 부근에 사는 일가친척들이 큰집에 모여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고형진(2004: 299-300)은 일가친척들이 설빔으로 치장한 아이들과 함께 큰집에 모두 모여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전통적인 명절풍속을 특별한 시적 상상의 변용 없이 있는 그대로 재구해 내는 이 시에서 낯선 평북방언의 구사가 없었다면 그저 평범하고 진부할 수도 있는 산문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낯선 평북방언들은 주로 평북지방의 풍속에 관련된 어휘들이인데, '李女', '承女', '承동이', '洪女', '洪동이' 등은 평북지방에서 사용된 아이들에 대한 호칭이고, '숨굴막질', '조아질', '쌈방이굴리기', '바리깨돌림', '호박떼기', '제비손이구손이' 등의 방언들은 모두 평북지방에서 아이들 놀이를 지칭하는 말이며, '매감탕'이나 '오리치' 등의 방언들도 모두 평북지방의 풍속과 관련된 어휘들이라고 한다. 즉, 낯선 평북방언에 이끌린 독자들은 평북고유의 풍속을 새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선하고 의미있는 문화로 각인하게되고 시인은 낯선 평북방언으로 평북지역의 풍속을 재구해 냄으로서 매몰되어 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를 살려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김영랑의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와 백석의 <여우난곬족>을 통해 방언이 시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면 소설 속

에서는 방언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통해서 리얼리즘 획득, 인물의 형상화, 지역정체성 획득의 세 가지 측면을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리얼리즘(realism, 寫實主義)획득; 러시아 형식주의자의 한사람인 보리스 토마셰프스키는 관습적 작품이건 예술적 작품이건 간에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 '사실적'이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노련한 독자가 소설의 허구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어느 정도 현실과의 일치를 요구하며 이러한 일치 속에서 그 작품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하였다(한기찬옮김: 1980: 123). <태백산맥>은 농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지주와 대립하여 빨치산이 될 수밖에 없는 궁핍함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농민들은 전남방언을 실감나게 구사하고 있다. 농민들이 주고받는 대화에 사용되는 전남방언은 소설의 무대가 되는 벌교라는 공간의 사실감을 더해주는데, 다음 대화 장면을 보도록 하자.

> "참말로 염병**헐 눔**에 **시상**이다!"
> 장칠복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요란한 소리로 방귀를 뀌어댔다. 그는 한쪽 엉덩이까지 약간 들고 있었다.
> "**와따매**, 구둘장 **내레앉겄소**."
> 유동수가 옆으로 조금 피해 앉으며 쏴질렀다.
> "**워메**, 산삼이 아니라 해삼을 **묵었는갑소이**. 그눔에 냄새 **콧구녕 썩어뿔겄소.**"
> 김종연이 코를 막으며 돌아앉았다.
> "**그려도** 니눔 트름 냄새보담이야 **훨씩** 낫다. 방구야 삭아서 아래로 빠지는 것이고 트름이야 설삭아서 **우로** 솟는 것인디, **워떤** 것이 더 몸에 **존** 냄새겄냐."
> "둘 다 몸에 **존** 보약**잉께** 몸보신덜 잘해봇씨요."
> 유동수가 마당찮은 눈길로 장칠복과 김종연을 번갈아 보았다.
> "동평아재, 저어…… 빨갱이 헌 집언 내년**부텀** 소작**얼** 안 준다는 말이 **있는디**, 참말**일께라?**"
> 서인출은 아까부터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어렵게 꺼냈다. 오동평은 금방 거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고쳐앉았다.
> "**고것이사** 당연지사 아니라고? 요번에 빨갱이눔덜 손에 절딴 안 난 지주가 없는 판인디, 그 웬수놈에 집구석들이 **머시가 이뻐서** 소작**얼** 주겄는가 … <생략> … **냄편** 그리 **승악허게** 죽는 꼴 보고 얻은 마음병**잉께** 아무리 **존** 약을 써도 **소양**이 **옳는** 것**이제**. 우리 아짐씨가 그리 앓**음서** 빨갱이**럴 워찌** 생각**허겄는가**. 치가 떨릴 것 **아니겄어**. **근디** 소작**얼 주겄는가?**"

희끄무레한 등잔불빛이 서린 방안에는 침묵이 차고 있었다.

- < 2권: 256-257 > -

이 장면은 마름 오동평의 아랫방에 모인 서인출, 유동수, 장칠복, 김종연의 대화 모습이다. 방구에서 비롯된 일상적 담화와 지주들이 빨갱이로부터 숙청당해 농민들은 소작을 떼일까봐 걱정하는 내용의 담화내용으로 이때, 농민들(서인출, 유동수, 장칠복, 김종연)과 마름 오동평의 대화는 방언이 자연스럽게 구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그 아랫방 공간을 메우고 있는 언어가 표준어였더라면 이러한 사실감은 급격히 저하되었을 것이다.

둘째, 인물의 형상화; 앞서 언급한 리얼리즘획득과 인물의 형상화는 소설에서 방언의 기능이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필자는 리얼리즘의 획득은 거시적 기능으로, 인물의 형상화는 미시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바라보려고 한다. 이정국(1999:152)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대립적인 성격의 인물 설정'을 들고 있다. 등장인물이 혼자 있을 때는 그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 함께 등장한다면 등장인물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 <태백산맥>에서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인물이 있다. 지식인 파르티잔 염상진과 우익 행동대장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아우 염상구의 관계가 그렇다. 작가는 작품 안에서 주모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두 인물을 대비 시키고 있다.

"**괴기로 치자면 성은 쇠고기고 동상은 개고기제라.**" 술집 주모의 말이었다.

<4:15>

언어사용 면에서도 작가는 철저하게 형에게는 표준어를 아우에게는 방언과 속어를 구사하도록 하여 두 인물의 대비를 강화시킨 것을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우리는 세 사람씩 일개조가 되어 독립운동을 하겠소. 내가 일조, 하 동무가 이조, 강 동무가 삼조를 지휘하시오. 하 동무는 서울상회 윤가네를, 강 동무는 학교 뒤 김가네를, 나는 정미소 최가네를 맡도록 하겠소. <1:42>

- 염상진의 말 -

(2) 지길, 나는 또 무신 소린가 혔소. 촌눔이라고 시퍼보는 줄 알고 속이 불끈혔지라. 쪼깐 들어봇씨요. 나도 일본놈 뱃때지에 칼질허고 내빼갖고 뜬구름맹키로 사

방천지 떠돔시로 서울물도 쪼깐 묵어봤구만이라. 헌디, 서울말 고것이 워디 붕알단 남자덜이 헐 말입디여? 밑구녕 째진 것덜이나 헐 말이제, 밥 먹었니이? 잘 잤니이? 고 간사시럽고 방정맞고 촐싹거리는 말이 워디가 좋다고 배우겄습디여. **서울말에 비허면 전라도말이 올매나 좋소. 묵직허고 듬직허고 심지고.** 대장님도 전라도에 온 짐에 전라도말 싸게 배우씨요. 남자가 헐 만헌 말잉께요. <2:192>
말 나온 짐에 한마디 더 혀야 쓰겄는디, 대장님이 몰라서 허는 소리제, **전라도말맹키로 유식허고 찰지고 맛나고 한시럽고 헌 말이 팔도에 워디 있습디여.** <2:192>

- 염상구의 말 -

예문 (1)은 지식인 계급에 속하며 혁명을 꿈꾸는 형 염상진의 언어가 정제된 표준어를 구사한 반면 예문 (2)과 같이 동생 염상구의 언어는 방언일색일뿐더러 전라도말을 '남자가 헐 만한 말'이라고 자부심마저 가지고 있다. 이는 작가의 언어관이 염상구의 말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만큼 작가 조정래는 <태백산맥> 곳곳에서 개개의 인물에 맞게 방언을 구사하여 개성이 살아나도록 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염상구는 전남방언 가운데 비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주로 구사함으로서 왈패 우익청년단장 염상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다음 염상구의 예문을 보자.

(3)a. 배운 것 읎이 무식허다 봉께로 **소갈머리**가 **쥐창아리**만 해갖고 오해혔구만이라.<1:171>
서장님, 고정허시씨요. 지가 **주딩이** 잘못 놀렸구만이라. <2:157>
아니, 지끔 나헌테 뎀비는 것이여? 요런 **좆대가리**가 지대로 여물지도 않은 새끼가 누구 앞에다가 **턱쪼가리** 치케들고 **아가리** 놀려. <2:259>
이년아, 니 나가 누군지 몰라서 그리 불뚱시럽게 지랄치는 것이여, 시방? **귀싸대기**에 한바탕 불이 붙어야 니가 지 정신 채리겄어! <8:109>

b. **고년**, 인자 병이 다 난 모냥이구나. <3:34>
니기미, 사람 꽉 겁믹여뿌네. <3:83>
니기럴, 사랑이라는 것이 먼지. <3:96>
고 **잡녀러새끼덜**, 보나마나 율어면을 폴세 차지혔을 것잉께로 요분 겨울은 배때지 뜨뜻허게 나게 생겠소. 나 말 다혔구만이라. <4:19>
와따매, 우리 부하새끼덜 붕알이 각단지게 얼음과자 되야불겄다. 까마구 날자배 떨어지드라고, **씨부랄눔덜**이 **지랄발광**허는디 날씨할라 **염병헌다고** 요리 칩

고 **지랄이여, 지랄이.** <4:13>
워떤 **잡것덜이** 고런 **주딩이 까고그려!** 싹 다 **쳐죽여뿔라!** <8:260>

위 예문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갈머리, 쥐창아리, 주딩이, 좆대가리, 턱쪼가리, 아가리, 귀싸대기' 는 모두 비하의 의미가 들어있는 명사파생접미사를 사용한 전남방언들이고, 예문 (3b)에서와 같이 '고년, 니기미, 니기럴, 씨부랄눔, 지랄발광, 염병, 잡녀러새끼, 잡것덜' 등의 비속어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비속어의 사용은 모두 염상구의 성격 묘사를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방언을 사용함으로서 성격형성에 성공한 인물로 '소화'와 '하대치'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여기서 그치려한다.

셋째, 지역 정체성의 획득; 임칠성(2001: 30)에서는 지역의 개념을 일단 공동생활권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지역성과 지역사회 의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는 동료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 등으로서,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사회적 관념, 공통된 전통, 공통된 관습, 공통의 귀속감 등과 연관된다. 이를 영문으로 표기하자면 region의 개념보다는 community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방언은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 속에서 배태되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방언이 말해지는 지역의 일반적인 정서와 긴밀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역이 가지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얻으면서 살아간다. 지역의 정체성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형성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지역문화 라는 토양 속에서 지역 방언으로 생성된 관용구를 <태백산맥>에서 찾아 제시함으로서 지역 정체성의 한 단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4) **열분 백분 참고 또 참어야 쓴다.**<1:31>
니는 **이름땜 허니라고** 그리 드세게 사는갑다. <1:33>
마실 댕겨오대끼 금세 올 것잉께.<1:33>
이눔아, **종눔 신세에 설깨친 글 아는 게 우환 불러들이는겨.** <1:35>
양반, 고 숭악헌 눔덜, **쇠포리맹키로** 징허고징헌 눔덜.<1:37>
긍께 **개똥도 약에 쓸라면 없다**고 어런덜이 안그러디야.<7:321>
저리 **괭이 앞에 새앙쥐요 호랑이 앞에 되깽이**가 되야갖고서야 <10:238>
고것덜얼 믿느니 **외손지가 지사지내준다는 말얼 믿는 게 낫제.**<3:150>
니눔이 무슨 맘뽀로 **다 된 잔치에 코 빠치는 거여,** 빠치길.<5:109>
모른 장작이 불땀 씨대끼<1:295>
칼로 무시 치대끼 안되는 것이 사람 맴잉께.<6:62>

쌀값이 **하늘 밑구녕 쑤심서** 치올르고,<2:43>
이도령 기둘리넌 춘향이 맴이 나만 혔을랍디여?<9:314>
워메 문딩이, **쎄는 짤라도 춤언 질게 밸을 작정혔구만.**<6:331>
짐칫국 먼첨 넴기지 마씨요.<4:180>

위의 예문 (4)에서 보듯이 <태백산맥>에는 전남방언으로 생성된 다양한 관용구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다분히 지역적인 특색이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언은 소설 작품 속에서 지역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Ⅲ. <태백산맥>의 음운론

1. 전남방언의 구획 및 음운체계

전남 방언은 몇 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로는 이돈주(1978:190)와 이기갑(1986)의 연구가 있다. 이돈주(1978)의 하위 방언권은 대체로 동부와 북서부, 그리고 남부 해안 도서 지역 등으로 하위 구분하고 있는데 구획에 대한 언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가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6] 한편, 이기갑(1986)은 언어지도에 나타난 등어선에 따라 전남지역이 일차로 동부와 서부로 나뉘고, 그 다음에 남부와 북부로 나뉜다고 하였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2>와 같다.

< 표 2 > 전라남도의 하위 방언구획(이기갑 1986:136)

	서 부	동 부	
북 부	영광 · 함평 · 장성 · 담양 광산 · 나주 · 화순 · 곡성서부	구례 · 광양 순천 · 여수 여천 · 승주동부	곡성동부
남 부	무안 · 영암 · 신안 · 진도 완도 · 해남 · 강진 · 장흥 보성서부	고흥 · 승주서부 · 보성동부	

이러한 방언구획에 따르면, 본고의 텍스트 주 무대인 벌교(보성동부)지역은 동부 전남방언에, 그리고 동부 전남방언 가운데서도 남부지역 방언에 해당하므로 동남부 방언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부 전남방언은 단모음체계에 있어서 서부 전남방언과 다른 체계를 갖는데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6) 이돈주(1978:190)의 방언구획
A지역: 광산, 담양, 곡성,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영광, 무안
B지역: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흑산도
C지역: 구례, 광양, 여천, 승주, 고흥, (거문도)

< 표 3 > 중부방언과 동부 전남방언의 모음체계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설	i	ü	ɨ	u
중설	e	ö	ə	o
저설	ɛ		ɑ	

< 표 4 > 서부 전남방언의 모음체계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설	i	ü	ɨ	u
중설	E	ö	ə	o
저설			ɑ	

위 표에서와 같이 동부 전남방언은 중부방언과 동일한 10 모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서부 전남방언은 9모음체계를 갖는다(이돈주:1978, 이기갑:1986). 이는 동부 전남방언이 전설 중모음 /e/와 전설 저모음/ɛ/가 중화되어 /E/로 실현되는 개신의 물결 영향을 받지 않은 보수적인 모음체계를 보이는 지대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의 남북 방언분화는 ‘ · ’의 변화에 관련 있는데 북부 지역은 ‘ ʌ > ə, ɑ’의 변화를 반영하고, 남부 지역은 ‘ ʌ > o, ɑ’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기갑:1986).

다음으로 전남방언의 이중모음 체계를 표준어와 비교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기세관 1981: 50).

/ ɨ - j , j - u /

j j

/ e , ə , j - o /

w w

j j

/ ɛ , a /

w w

< 표 5 > 표준어의 이중모음: 11개

/ j - u /

j

/ ə , j - o /

w

j

/ a /

w

< 표 6 > 전남방언의 이중모음: 6개

이에 필자는 본장에서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반영된 전남방언의 움라우트, 구

개음화, 모음상승, 전설모음화, 원순모음화, 단모음화 등의 현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움라우트

움라우트현상은 모든 방언에서 두루 나타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전남방언을 포함한 남부 방언에서 특히 그 실현 양상이 활발하다고 한다(기세관 1981: 81). 움라우트(Umlaut)란 /i/나 /j/의 영향으로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역행동화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현상의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강옥미 2003: 480).

$$[+\text{syll}] \rightarrow [-\text{back}] \ / \ \_\_\_\_ \ C_1^2 \begin{bmatrix} -\text{cons} \\ +\text{high} \\ -\text{back} \end{bmatrix}$$

< 표 7 > 움라우트의 일반적인 규칙

즉, 움라우트는 전설모음 i나 j를 동화주로 하고 후설모음을 피동화주로 하여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자음이 개재하지 않거나, [-coronal]의 자음이 하나 혹은 두 개가 개재되면 후설모음이 동화주가 가지고 있는 전설성에 동화되어 전설모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리하여 움라우트의 실현양상을 더 정밀화하면 다음과 같다.

	ɨ	u	ə	o	a
i(j) →	↓	↓	↓	↓	↓
	i	ü	e	ö	ɛ

< 표 8 > 움라우트의 일반적 실현양상

전남방언에서도 이와 본질적 차이는 없으나 표면상으로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

다고 한다. 전남방언에서 /e/와 /ɛ/는 /E/로 중화되는 경우가 일반이므로 위 그림에서 /a/와 /ə/는 움라우트 되어 모두 /E/로 실현될 것이고, 또 전남방언에서 /ö/나 /ü/는 각각 /E/나 /i/로 변이되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o→ö→E, u→ü→i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남방언의 움라우트 실현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기세관 1981: 82-83).

	ɨ	u	ə	o	a
i(j) -	↓	↓	↓	↓	↓
	i	ü	E	ö	E
		↓		↓	
		i		E	

< 표 9 > 전남방언의 움라우트 실현양상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이 소설 텍스트인 관계로 /E/모음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소설 주 무대가 10모음 체계를 갖는 동부 전남방언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ə(ㅓ) + i(ㅣ) → e(ㅔ), a(ㅏ) + i(ㅣ) → ɛ(ㅐ), o(ㅗ) + i(ㅣ) → ö(ㅚ)'라고 표기하겠다.

한편, 움라우트현상은 18세기와 19세기 교체기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ㅁ, ㅂ, ㅍ' 등 순자음이나 'ㄱ, ㅋ, ㄲ, ㅇ' 등 연구개 자음이 개재할 때 활발하게 일어나고[7], 'ㄴ, ㄷ, ㅌ, ㄸ, ㅅ' 등의 치조음이나 'ㅈ, ㅊ, ㅉ' 등의 구개음이 개재할 때는 움라우트가 제약 된다[8]. 그러나 치조음 'ㄹ'이 개재할 경우 방언에 따라 움라우트가 실현되기도 한다[9].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음장이 개재할 때도 움라우트가 제약된다[10]. 또한 표기법 상으로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움라우트를 제약하는 자음이 개재해 있더라도 음운현상의 결과 움라우트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 있다[11](박경래 1999: 112).

---

7) '냄비<남비, 해필<하필, 왱겨<왕겨, 맥히다<막히다' 등.
8) '*개니?<가니?, *에디<어디, *외시<옷이, *대시<다시, *배지<바지' 등.
9) '대리다<다리다, 베리다<버리다, 채리다<차리다' 등.
10) '*뱀:이[栗]<밤:이, *갬:이[柿]<감:이, *괌:이[熊]<곰:이, *쉼:이[呼吸]<숨:이' 등.
11) '맡기다→맏기다→막기다→매끼다, 쫓기다→쫃기다→쪽기다→쪄끼다, 안기다→앙기다→앵기다' 등. 이들은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치조음이나 구개음이 순자음이나 연구개자음으로 동화

2.1 형태소 내부

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의 방언들이 상당히 유사한 움라우트의 실현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바 <태백산맥>에서도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다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a. 대갱이(대강이): 갱물에다 **대갱이**부텀 카악 처박아뿌러!<4:181>
방맹이(방망이): 워따, 자네 매질이나 내 매질이 워디 솜**방맹이**간디?<3:46>
쏘내기(소나기): 쩌 구름에 비 들었을라디야 허는디 **쏘내기** 퍼붓는다는 말<6:25>
애비(아비): 친일파가 느네 할애비를 죽였냐, **애비**를 죽였냐, <6:247>
지팽이(지팡이): 인자 **지팽이**럴 짚어야 될랑가?<3:333>
호랭이(호랑이): 돈만 있음사 뛰는 **호랭이** 눈썹도 뽑소.<3:224>
b. 구렝이(구렁이): **구렝이**보담도 징허고 징헌 눔아.<2:40>
덤테기(덤터기): 야 옆에 앉었다가는 나할라 **덤테기**쓰겄네웨.<4:58>
데미(더미): 짚북**데미** 속에서 요것이 멋허는 지랄인지<3:225>
산등성이(산등셍이): **산등셍이**럴 타지 말라는 것인디,<8:102>
뎅이(덩이): 주먹밥도 한 **뎅이**씩 묵음시로.<1:323>
돌뎅이(돌덩이): 거그에 백힌 **돌뎅이** 수가 을매일 것이며,<4:307>
불뎅이(불덩이): 워메, 몸이 **불뎅이**시!<8:313>
끄뎅이(끄덩이): 설매년 머리**끄뎅이**럴 휘어잡아 패대기럴 치고 잡은 속마음<3:210>
구뎅이(구덩이): 무시**구뎅이**도 그대로 있는디<6:96>
산데미(산더미): **산데미**라 못 오시게 생겠응께,<4:166>
예펜네(여편네): **예펜네**덜이 다 워디로 가부렀소.<1:183>
c. 괴기(고기): **괴기**로 치자면 성은 쇠고기고 동상은 개고기제라.<4:15>
퇴깽이<토깽이(토끼): 어허, 그 꾀 한분 용왕 쇡인 **퇴깽이** 꾀다!<4:50>

d. 귀경(구경): 베 폴라고 나왔는갑는디, 워디 **귀경** 잠 헙씨다.<9:259>
문딩이(문둥이>문뒹이): **문딩이** 가시내, 팔자도 참 험허게 변했다.<1:263>

되어 움라우트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로서 움라우트 규칙보다 동화규칙이 먼저 적용된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경래 1999: 109-110 참고.

(6) 냄편(男便): **냄편**이고 아덜이고 열썩이라도 못 당허겄다.<7:279>
챙피(猖披): 이래서는 피차 **챙피**만 사제 이문될 것이 머시다요.<2:153>
핵교(學校): **핵교**야 여그서 싹 때레치워뿌러.<8:278>
옘병(染病): **옘병**헐, 이 드런 놈의 냄새가 잘 먹은 속 뒤집네.<8:265>

체언 내부에서의 움라우트를 보여주는 위의 예들 가운데 (5)는 고유어이고, (6)은 한자어이다. (5a)는 피동화 모음이 /아/이고, (5b)는 /어/, (5c)는 /오/, (5d)는 /우/인 경우인데, (5a)와 (5b)만이 활발하고 나머지는 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동화주 모음 /아/, /어/, /오/, /우/와 동화주 /i/, /j/ 사이에는 [-coronal]의 순음이나 연구개음이 개재하고 있어, 국어 움라우트의 일반적인 제약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한자어는 움라우트가 상당한 제약을 받아 움라우트의 생산성은 다소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태백산맥>에서 발견되는 움라우트의 생산성은 체언에서는 물론, 용언 어간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7) 애끼-(아끼-): 고런 잘난 동무덜이 몸 안 **애끼**는 열성을 생각허나<8:298>
기맥히-(기막히-): 거그 **기맥힌** 기사가 나왔다.<7:281>
뎀비-(덤비-): 개새끼도 지 밥통 차먼 쥔이라도 물어뜯고 **뎀비**는겨,<4:72>
댕기-(당기-): 올려어, 끌어**댕기**어--<7:205>
딛기-(듣기-): 저리 오래 저 소리가 **딛기먼** 탱크가 을매나 많을랑가?<8:152>

(8)a. 쥑이-(죽이-): 사람 **쥑이는** 거 날이날마동 보자니께 환장허겄구만요.<1:66>
고 오살헐 눔덜이 **쥑여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쥑였당께요.<1:173>
씨이-(쓰이-): 핏줄이라고 헌께 중히 생각키고 맴이 **씨이고** 허제<6:111>
쌩이-(쌓이-): 그간 쌩이고 **쌩인** 서럼이고 분험이고 고상이고<4:190>
b. 잽히-(잡히-): 워처케 **잽히드냐?**<2:32>[12)]
맥히-(막히-): 시상에 고런 **기맥힌** 인심이 워디 있을라디야<1:154>
백히-(박히-): 정신 지대로 **백힌** 남정네덜이 워째야 혔겄어.<2:44>
백인(박힌): 요것이 워찌 정신 지대로 **백인** 사람이 헐 소리여.<2:109>

12) 잽혔-(잡혔-): 워디서 **잽혔드냐?**<2:31>

c. 맽기-(맡기-): 고런 것이야 다 나헌테 **맽기씨요.**<4:147>
찢기-(쫓기-): 아무리 다급허게 **찢기는** 몸이라도<3:223>
띧기-(뜯기-): 머리크락 싹 다 **잡아띧겨** 중놈 상호되고 잡은개비요.<4:263>
벳기-(벗기-): 옷얼 안 **벳기면** 또 맘이 변해 그짓말얼 헐 것잉께<3:40>
넴기-(넘기-): 짐칫국 먼첨 **넴기지** 마씨요.<4:180>
냄기-(남기-): 그려, 한 방울도 **냄기지** 말고 다 묵고 몸 실해야 쓴다.<3:228>

위의 예들 가운데 (7)은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용어 어간 내에서 이루어진 움라우트의 예이고, (8)은 용언 어간에 피 · 사동접사 '-이-, -히-, -기-'가 연결되어 형성된 사동사와 피동사에서 수행된 움라우트의 예이다. 그런데 (8c)에서 '맽기-, 찢기-, 띧기-, 벳기-' 같은 경우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치조음이나 구개음이 개재되어도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움라우트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에 치조음이나 구개음이 순자음이나 연구개자음으로 동화되어 움라우트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로서 움라우트 규칙보다 동화규칙이 먼저 적용된 결과이다[13].

부사어 또한 음운론적 층위에서 작용하는 움라우트의 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움라우트가 실현되는데, 다음이 그 예이다.

(9) 해필(하필): 염병허고, 워째 **해필**허고 안 동무 다리를 맞혔을께라. <2:170>
무슨 반동질을 하다가 해필 전주에 와서 잽히고 이런가?<7:122>
어채피(어차피): **어채피** 한 번은 만나야 헐 판국이라면<1:74>
어채피 약 구허기넌 틀렸응께<9:288>

지금까지 살펴본 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의 실현 양상은 동화주와 피동화주, 개재자음의 측면에서 국어 방언들이 지닌 일반적 제약 조건[14]을 잘 갖춘 경우에

13) 맽기-: [맏+기-] > [막+기-] > [맥+기-]
찢기-: [쫃+기-] > [쪽+기-] > [쩍+기-]
띧기-: [뜯+기-] > [뜩+기-] > [띡+기-]
벳기-: [벋+기-] > [벅+기-] > [벡+기-]

14) 첫째, 동화주는 /i/, /j/이며, 피동화주는 모든 후설모음(ɑ, ə, u, o, ɨ)이다. 둘째, 동화되는 방향은 역행적이다. 셋째,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개재하는 자음은 하나 이상으로서 [grave]자질을 갖는다(성희제 2000: 191).

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움라우트 연구 성과들에 의하면, 국어 방언들에서 다양한 움라우트의 확대 현상이 존재하는바,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는 그러한 확대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음운 현상이 일정 시기에 생산성을 가지게 되면 당시나 그 이후에 그 현상의 일정한 제약에서 벗어난 확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움라우트 확대의 첫 번째 양상은 개재자음의 확대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국어의 움라우트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coronal] 자음이 개재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치경음이나 경구개음 같은 [+coronal] 자음은 움라우트의 실현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국어의 하위 방언들에 대한 움라우트의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제약을 벗어난 움라우트 확대 예가 상당히 많이 보고된 바 있다. [+coronal] 자음 가운데 /ㄹ/이 예외적으로 그러한 제약을 벗어난 데 이어 다른 자음 역시 움라우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강희숙(2004a:57-58)은 이문구 소설의 움라우트 연구에서 충남방언 중 [+coronal] 자음이 개재자음인 경우로 /ㄹ/ 이외에도 '쇤님, 에지간히, 뇌동(勞動), 뇽사(農事), 댕신(當身)'이 출현하여 치경음 /ㄴ/이나 /ㄷ/, /ㅅ/, 경구개음/ㅈ/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움라우트가 일어나는 모습을 이문구 소설 속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그러면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는 그러한 개재자음의 확대를 보여주는 예로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0)a. 되련님(도련님): 읍내서 질 가는 양반댁 **되련님**들이시다.<5:39>
개리-(가리-): 고것이 눈 **개리고** 아웅허는 빨갱이덜 수법이랑께요.<1:176>
채리-(차리-): 정신 똑똑허니 **채리고** 근무혀!<1:244>
건디리-(건드리-): 총알이 창시 하나 안 **건디리고** 피해갔제.<6:78>
디리-(드리-): 그까징 이름 석 자, 워째 못 **빌려디리겄소.**<5:279>
우리가 차지혀도 안될랑가 **말씸디리는구만이라.**<6:97>
딜여(들이여>들여>딜여): 싸게 나가서 단원 셋얼 **불러딜여!**<3:35>
순사덜이 즈그 계급 올라갈라고 되나케나 사람 **잡아딜여** 빨갱이 맹그는<4:294>
이년아, 귀신발맹키로 징허게 무신 짓이여. 끝엣 손꾸락 두 개에만 **딜여.**<3:258>
낋이-(끓이-): 속 **낋이지** 말고 견뎌라.<3:259>
b. 에지간히(어지간히): 문딩이, **에지간히** 돌라묵었는갑다.<4:194>

위의 예에서 (10a)는 개재자음의 확대를 보여주는 예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ㄹ/

이 개재자음인 경우이고, (10b)는 다른 [+coronal] 자음인 경구개음 /ㅈ/이 개재자음인 경우이다.

한편, 강희숙(2004a:58-59)은 개재자음의 확대현상 중 통시적 변화를 거친 움라우트 형태로 '쇠주(소주), 웬수(원수)'를 제시하였다. 이 어휘는 표면상으로 볼 때, 움라우트의 동화주가 발견되지 않으나 기원적으로 '쇼쥬(>소주), 원슈(>원수)'의 두 번째 음절에 활음 /j/를 가지고 있어 움라우트가 실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는 '웬수'형만이 발견되고 있다.

(11) 웬수(원수): **웬수**는 외나무다리서 만낸다드만 우대가 똑 그 짝이구만.<1:216>
질로 큰 **웬수**가 양코배기덜이고, 그 담이 정 사장이고 순사요.<3:150>

따라서 (11)은 통시적 변화를 거친 움라우트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다.

움라우트 확대의 두 번째 유형은 동화주의 확대이다[15].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정래의 <태백산맥>에는 이와 같은 동화주의 확대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움라우트 확대 세 번째 유형은 도수희(1981), 성희제(2000) 등에서 제시한 바 있는 유추적 확대이다. 유추적 확대란 동화 현상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움라우트가 실현된 특이한 예들에 해당된다.

(12) 쬐끔(조금): **쬐끔**만 요상허다 싶으면 꼭 나헌테 연락 취해야 쓸 것이요.<1:183>
갱물(강물): 이눔아, 사람 한시상 사는 것이 똑 **갱물** 흐르디끼 허는겨.<1:128>

<태백산맥>에 반영된 위 예문은 결과적으로는 움라우트가 실현되었으나 동화현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른 음운론적 기제를 생각하게 한 경우이다.

움라우트 확대의 네 번째 유형은 순행적 움라우트이다. 국어 움라우트의 일반적인 동화의 방향에 있어서 이숭녕(1935), 정인승(1937), 김완진(1963, 1971), 최명

15) 지역에 따라 동화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은 이승재(1980)와 도수희(1981)의 논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승재(1980)는 구례지역어에 있어서 형태소 내부 상에 [-변음성, +고음성]의 i, ü, 모음이 예외없이 동화주가 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도수희(1981)는 충남방언의 움라우트 예에서 i, j 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전설모음도 부분적으로는 동화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옥(1989) 등은 역행적인 것으로 파악하였고, 도수희(1981)는 역행동화, 순행동화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고찰하였다. 국어 움라우트의 동화의 방향이 역행적이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발견되는 순행적 진행의 모습을 예로 들면 다음 (13)과 같다.

(13) 치매(<치마): 치자물 딜인 모시 **치매**저구리 부러바허든<8:234>
그러니께(<그러니까): **그러니께**……<3:24>
맹길-(맹글-): 아덜얼 딱허니 **맹길** 자신이 있는겨, 읎는겨?<5:242>

그런데, 강희숙(2004a:62)에서는 순행적 움라우트의 존재에 대한 재고를 요하는 몇 가지 현상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다음 예문과 같은 것이다.

(14)a. 놀래-(놀라-): 저도 이번에 아주 **놀랬습니다.**<3:357>
농새(농사): 그럴라면 염병헌다고 **농새**를 지어라?<1:154>
만내-(만나-): 니는 느그 성님을 **만내봤냐?**<1:138>
얼매(얼마): 현씨네 빈 제각에 숨을 디는 **얼매**든지 있그만이라<1:101:>
장개(장가): **장개**도 못 가고 니가 죽다니, 워쩔끄나 아아<3:342>
지내-(지나-): 금강산 **지내** 백두산꺼정 갔을 것이다.<1:138>
b. 고생>고상: 정 사장 어런 **고상**만 늘어난께 싸게 면회부텀 가시씨요.<3:300>
동생>동상: 내 **동상** 겉은 젊은 사람이 살아보겄다고 그래싼께<1:131>
선생>선상: 아부지 한을 풀어줄라면 싸게 **선상**질을 혀<1:134>

예문 (14a)는 예문(13)과 유사한 개음절 환경에서 이루어진 하강적 활음 /j/의 첨가현상이고, 예문 (14b)는 하강적 활음 /j/의 탈락현상이라는 견해에 비추어 본다면 순행적 움라우트 존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2 형태소 경계

국어사적으로 볼 때 움라우트는 형태소 내부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간주된다(박경래 1999: 110).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움라우트는 통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움라우트는

공시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어의 움라우트는 형태소 경계에서보다 형태소 내부에서 더 용이하게 실현된다(김완진 1971: 106-107, 최전승 1989: 91).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도 형태소 내부보다는 경계에서 움라우트가 적게 실현됨을 알 수 있는데 다음이 그 예이다.

(15)a. 마음-이>맴이: **맴이** 요상시러바진당께. <6:127>
오죽이나>오쥑이나>오직이나:
오직이나 못 살겄으면 고향 버리고 그 먼 간도땅으로 떠나고,<3:148>
b. 법-이다>벱이다: 다 죄는 진 대로 가고 공은 땀은 대로 가는 **벱이여.**<5:109>

위 예문은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예로서 (15a)는 체언과 조사 '-이'의 연결에서, (15b)는 체언과 계사 '이다'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움라우트이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움라우트 예는 용언어간에 명사파생접사 '-이'와 명사형 어미 '-기'가 연결되는 경우이다.

(16) 마구잽이(마구잡이): 글타고 시퍼보고 **마구잽이**로 뎀빌 일도 아니다 그것이여.<7:209>
뵈기(보기): 못난 느그 애비 탁헌 그 꼬라지 **뵈기**도 싫은께 싸게 집으로 끼대가뿌러.<5:272>

예문 (16)은 '잡-+-이'와 '보-+-기'의 형태소 경계에서 각각 'ㅏ>ㅐ', 'ㅗ>ㅚ'의 움라우트가 실현됐음을 알 수 있다.

3. 구개음화

김주필(1999: 182)은 구개음이란 혀의 면(舌面)이 경구개에 가 닿음으로써,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구개음화는 구개적 모음 /i/ 또는 /y/를 선행하는 모든 비구개 자음을 [+back]에서 [-back]으로 전환시키는 역행동화 현상을 말하지만, 본고에서는 /ㄱ/ > [ㅈ], /ㄷ/ > [ㅈ] 및 /ㅎ/ > [ㅅ]으로 되는 과정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구개음화는 전라·경상방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점진적으로 북부지역으로 확산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안병희:1957, 이기문:1972, 김완진:1975). 남부방

언에서는 일반적인 구개음화의 유형(ㄱ>ㅈ, ㄷ>ㅈ, ㅎ>ㅅ)을 보여주지만, 경기방언은 그 일부만(ㄷ>ㅈ)을 수용했으며 평안방언은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문:1972)이 이를 입증한다.

구개음화는 동화 현상이다. 왜냐하면 /ㄷ, ㄸ, ㅌ/와 /i , j/ 사이의 관계보다 /ㅈ, ㅉ,ㅊ/와 /i, j/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깝기 때문이다(이익섭 1991: 45). 즉, /i, j/가 자기보다 먼 거리에 있는 자음을 자기와 가까운 자리에서 나는 발음으로 바꾼 현상이므로 동화 현상인 것이다.

그러면 <태백산맥>에는 전남방언의 구개음화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1 /ㄱ/-구개음화

/ㄱ/-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 그것도 제1음절에서 일어난다. 즉 /ㄱ/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i/, /j/ 앞의 비구개음 /ㄱ/, /ㄲ/, /ㅋ/가 각각 구개음 [ㅈ], [ㅉ], [ㅊ]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이다.

김주필(1999:186)은 /ㄱ/-구개음화는 남부 방언이나 함경 방언, 그리고 중부 방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중부 방언이나 평안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16] /ㄱ/-구개음화 역시 16세기와 17세기경에 남부 방언(전라방언, 경상 방언)의 자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바, 이 현상은 16·17세기경에 남부 방언의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확산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17)a. 짐(<김): 대장님도 전라도에 온 **<u>짐</u>**에 전라도말 싸게 배우씨요.<2:192>
질쌈(<길쌈): **<u>질쌈</u>**말고 무신 딸 일얼 갤치소.<5:232>
지집(<계집): 누나넌 **<u>지집</u>**앤께 그런 말 허는 겨.<7:130>
질(路)(<길): 그 **<u>질</u>**로 소화다리로 끌고 갔구만이라.<1:65>
지름(<기름): 날이날마동 못사는 사람덜 **<u>지름</u>**짜기로 변해가는 판인디,<2:44>
지침(<기침): 아그덜헌테넌 **<u>지침</u>**이 큰병인 것잉께라.<6:227>
밀지울(<밀기울): 오늘 저녁으로 **<u>밀지울</u>**도 딱 떨어져뿌렀소.<4:146>

16) /ㄱ/-구개음화를 일으키는 지역들에서는 /ㅎ/-구개음화도 함께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다(이익섭 외 1997: 328).

b. 젂-(<겪-): 한분썩 **<u>젂어본</u>** 사람이먼 누가 좋아라 허겄소.<7:235>
젼디-(<견디-): 성질 낋이지 말고 진득허니 **<u>젼디는</u>** 연습 혀얄 것이여.<3:214>
질-(長)(<길-): 하 짜석, 밥 다 타뿔라고 사설도 **<u>질기도</u>** 질다.<4:103>
짚-(深)(<깊-): 어린 것이 워찌 그리 속이 **<u>짚을끄나와.</u>**<1:159>
c. 자웃자웃(<갸웃갸웃): 고개만 **<u>자웃자웃</u>**허고 있는디,<3:210>
d. 찌리(<끼리): 즈그덜**<u>찌리</u>** 쪼깐씩 쌀추렴혀서 떡 한 시루 해갖고<6:136>

위의 예들 가운데 (17a)는 체언에서, (17b)는 용언에서, (17c)는 부사에서, (17d)는 접사에서 실현된 /ㄱ/-구개음화를 반영한 예들이다. 다만, (17a)의 '밀지울'은 예외적으로 비어두 위치에서의 /ㄱ/-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인데 '밀이나 귀리 따위의 가루를 쳐 내고 남은 속 껍질'을 뜻하는 '기울'이 먼저 /ㄱ/-구개음화를 거친 후에 '밀'+'지울'의 합성을 겪은 후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3.2 /ㄷ/-구개음화

현대국어에서 /ㄷ/-구개음화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나 명사의 마지막 자음 /ㄷ/, /ㅌ/가 /i/, /j/로 시작하는 접사 앞에서 각각 [ㅈ], [ㅊ]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이다.

/ㄷ/-구개음화는 서북 방언을 제외하면 형태소의 내부에서는 이미 완결되어 형태소나 단어가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느티나무, 마디, 어디' 등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예들에서는 /ㄷ/, /ㅌ/이 /i/앞에서도 구개음 [ㅈ]이나 [ㅊ]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느틔나모, 마ᄃᆡ, 어듸' 등의 어형이었기 때문인데, 이들 어형에서 /ㄷ/, /ㅌ/ 다음에 오는 이중 모음이 /i/로 바뀌기 전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구개음화가 일어나던 당시에는 /ㄷ/, /ㅌ/이 구개음화의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김주필 1999: 185-186).

또 김주필(1999:186)에 의하면, /ㄷ/-구개음화는 16세기 중기 남부방언 자료에서 보이기 시작하므로 남부 방언에서 먼저 일어나 서북 방언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오늘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 <태백산맥>에 /ㄷ/-구개음화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18)a. 짐치(<딤치): 야아, 워쩌신게라, **짐치**가 잡수실 만허신게라?<3:185>
싸게싸게 **짐치** 내오니라.<4:65>
b. 부치-(<붙이-): 전라도땅에서 누구 땅 **얻어부치고** 살 가당찮은 생각 묵지를 말어라.<1:36>

위의 예에서 중앙어의 '김치'가 '짐치'의 과도 교정의 결과라 한다면 (18a)는 오직 /ㄷ/-구개음화만을 겪은 형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ㄷ/-구개음화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단어나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나 그 어형이 이미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에 /ㄷ/-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을 표준어로 채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지 /ㄷ, ㅌ/로 끝나는 실질형태소에 /i/나 /j/가 결합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같이, 굳이, 같혀'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나 단어의 기본형을 정하여 형태의 단일화를 꾀하기 위해 맞춤법 규정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어형을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3.3 /ㅎ/ 구개음화

/ㅎ/구개음화도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형태소 내부, 그것도 제1음절에서 보인다. 즉 /ㅎ/구개음화도 형태소 내부에서 /i/, /j/ 앞에서 구개음이 아닌 /ㅎ/가 구개음/ㅅ[ʃ]/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이다. 김주필(1999;187)은 /ㅎ/-구개음화도 16세기경부터 남부 방언에서 먼저 보이기 시작하며 서북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남부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중부 방언에서는 일부의 어휘에 한정되어 일어났다고 하였다. 다음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반영된 /ㅎ/-구개음화의 예이다.

(19)a. 성(兄)(<셩<형): 우리 범준이 **성님**은 지리산 호랭이맨치로 날래고 싸나운께<1:38>
니허고 나허고는 **성제간**보담도 더 가차운 사이란 걸 알어야 써.<4:106>
숭(<슝<흉): 신령님 앞이니께 무신 이약을 혀도 **숭**이 안 잽히고,<3:20>
숭은 무신 **숭**, 하도 맛나게 잘 묵응께 이뻐서 허는 소리제.<3:117>
쎄(<쎠<혀): 아, 고 **쎄럴** 열댓 발 빼내도 분이 안 풀릴 그눔이<2:113>
날이날마닥 **쎄빠지고** 좆빠지게 연습을 혔응께 그리 된 것 아니겄소.<7:37>

b. 심(<힘): 그간에 **심**이나 모트고 있으소.<9:141>
엉치 작은 여자 아그 낳기 **심들어** 밤낮 사흘 삐대는 것맹키로<9:12>

예문 (19a)는 /j/ 앞에서 구개음이 실현 후 단모음화를 경험한 것이고, 예문 (19b)는 /i/ 모음 앞에서 구개음화만 실현된 경우이다.

4. 모음상승

모음상승은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동일 계열의 고모음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다. 즉 모음이 후행하는 /i/나 /j/가 없는데도 '에>이, 어>으, 오>우'로 변하는 현상이다. 다음은 이를 표로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표 10> 모음상승 현상

	전설	중설	후설
고모음	ㅣ ▲	ㅡ ▲	ㅜ ▲
중모음	ㅔ ↑	ㅓ ↑	ㅗ ↑

그러면 모음상승현상이 반영된 예를 <태백산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4.1 에>이

강희숙(2005: 12)에 의하면 '에>이, 어>으, 오>우'의 세 가지 유형의 고모음화 현상 가운데 전설의 위치에서 수행된 고모음화인 '에>이'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들은 /에/, /애/의 중화현상[17] 및 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17) 조창규(1996:97)에 따르면 '에:애'의 중화와 '에>이'의 현상과 관련하여 선후 관계에 따라 세 가지 가능성을 가정하였다. 첫째, '에:애'가 중화되어 두 모음이 변별되지 않자 '에'가 '이'로 상승하였다. 둘째, 다른 중위 모음의 상승에 영향을 받은 '에'가 '이'로 상승하게 되자 '에'와'애'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애'가 상승함으로써 그것의 음역이 '에'와 중복되어 중화가 발생하였다. 셋째, '에:애'의 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에'가 '이'로 상승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기갑(1986:22-23)은 모음체계 차이에 따라 전남방언을 동부와 중 · 서부로 양분하였는데, 동부는 표준어와 동일한 10모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 · 서부는 /에/, /애/가 /E/로 중화된 결과 9모음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남 동부는 /에/ > /이/ 로 변화한 반면, 전남 중 · 서부는 /E/ > /이/로 변화하였다. 그러면<태백산맥>에서 '에>이'의 변화를 반영하는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20)a. 미고(메고): 읍내에는 순사들이 총 **미고** 댕긴당께요<1:149>
시상(세상): 이 애비가 산 **시상**허고 니가 살 **시상**허고는 생판 달블 것잉께.<1:130>
지사(제사): 할아부지 **지사**럴 지내 막걸리가 딱 한 되 있구만.<3:207>
이쁘-(예쁘-): 시악씨가 아조 **이쁘고도** 얌전튼디,<3:299>
싯(셋):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죽어뿔고 남치기가 딸만 **싯**인디다가, <9:31>
핀지(편지): 요 **핀지**가 가방서 나온 이상,<8:274>
기시-(계시-): 야아. 얼렁 맹글 팅께 방에 들어가 **기시씨요.**<2:78>
지(제): 지가 진 농새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지** 손으로 간수허는 맛에 살제<1:154>
니(네): **니**가 모르먼 고걸 누가 알어,<1:30>
띠믹히-(떼먹히-): 이태나 지주눔덜이 쌀 **띠믹힌** 것을 생각허믄<6:33>
b. 믹이-(먹이-)[18]: 아그덜이나 **믹이씨요.**<3:146>
지대로(제대로): 말귀 하나 **지대로** 못 알아묵고 지랄이여.<2:33>
디(데): 그려서 가차운 **디**로 숨은 것이제라.<7:154>
c. 그런디(그런데): **그런디** 입 싹 씻거뿌는 그 심뽀가<6:219>
어지께(어제): **어지께**밤에 좌익시상이 되야부렀어라.<1:61>

(21) -는디(-는데): 가난허고 불쌍헌 사람덜 편이라**는디** 나쁘기사 허겄는가요?<1:24>
긍께, 어르신 차례가 되얐**는디**, 워메 참말로 환장허겄등거.<1:63>
-시(-ㄹ세): 어허허허, 고거 한번 존 생각이**시.**<1:195>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고런 말씸이**시.**<1:289>

위의 예들 가운데 (20)는 어휘 형태소 내부에서, (21)는 문법 형태소에서 '에>이'가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운론적으

18) 먹이->멕이-(움라우트)>믹이-(모음상승)

로 더 중요한 것은 (20c)에서와 같이, 비어두 위치에서도 '에>이'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소설에서는 (20b)와 같이 장음이 아닌 환경에서 적용되는 '에>이'의 모습도 발견된다. 사실 음장은 모음상승 현상에 가장 중요한 음운론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강희숙(2005:15-16)은 '에>이'는 애초에 음장이 음운론적 기능을 발휘하는 어두 위치에서 발생하여, 음장이 그러한 기능을 갖지 못하는 비어두 위치나 문법형태소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4.2 어>으

중설 위치에서 수행된 '어>으'의 변화는 음장(音長)이 중요한 음성적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병근(1976:5)에 의하면, 중부방언에서의 '어>으'는 19세기 후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 변화는 본디 음장(音長)과 관련 있는듯하다고 한다.

또한, 강희숙(2005:18)에서는 서울말의 경우 주로 어두 위치의 어휘 형태소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어>으'의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반면, 전남방언의 경우에는 어두 위치에서는 고모음화가 거의 실현되지 않고 비어두 위치의 문법 형태소에서만 고모음화가 실현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어>으'의 변화를 반영하는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a. 을매나(<얼매나): **<u>을매나</u>** 멀리 삼십육계럴 쳤뿌렀간디<7:13>
뽀짝 몰른 솔가지 뿐질르는 소리가 **<u>을매나</u>** 멀리꺼지 딛깁디여.<8:102>
드럽게(<더럽게): 저 친구 좌천을 당해도 **<u>드럽게</u>** 당했군. <2:308>
똥통보담도 더 **<u>드럽게</u>** 썩어가는 시상이요.<4:295>
읎-(<없-): 그 사람덜도 에진간히 의리 **<u>읎고,</u>** 보초 읎소.<6:25>
증말(<정말): **<u>증말</u>** OSS대원같이 생겼다.<1:106>
b. 스-(<서-): 온냐, 니가 애 **<u>스는갑다.</u>**<3:332>
빨치산 팔자에 보초 안 **<u>스고</u>** 편안허니 자보는 것도 큰 복일 것이요.<9:339>

위의 예들은 어두 위치에서 실현되는 '어>으' 실현 예로서, (22a)는 어두 위치의 장모음 /어/가, (22b)는 장모음이 아닌 단모음 /어/가 각각 고모음화에 의해 [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장모음 /어/가 고모음화를 겪고 있는 예는 활발함에 비해 음장을 지니지 않은 경우로는 '스-'(서-, 立) 하나만 보인다.

이 소설에서는 비어두 위치에서의 '어>으' 실현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다음에서와 같이 문법형태소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23) -믄(<-먼<-면): 한 성제간 돈인디 **그러믄** 어쩌고, 저러믄 어쩌겄소!<5:281>
그러믄요, 잘하셨습니다.<7:52>
-드-(<-더-): 나중 당헐 때 **당허드라도** 당장 급헌 불길 꺼야제.<1:184>
시상읎이 **춥드라도** 땀 찬 발로 자 버릇 허지 말어.<3:229>
같은 **사업하든** 동무들이구만요. 싸게 인사디려.<7:257>

위 예문 (23)은 연결어미 '-믄'과 선어말어미 '-드-'에서 일어나는 '어>으' 실현 모습이다.

4.3 오>우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의 고모음화가 어두의 장음이라는 제약 하에서 발생하여 규칙의 발달과 확대를 보여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오>우'는 그 양상을 달리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우' 변화는 18세기 후기 국어에서 음장의 기능과는 무관한 비어두 위치에서 발생한 후 규칙의 점진적 확산을 경험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공시적 생산력을 지니는 음성변화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희숙 2005: 21).

후설모음 /오/가 고모음화에 의해 [우]로 실현되는 현상인 '오>우' 변화는 비어두 위치의 어휘 형태소에서 다소 나타난다.

(24) 종눔(놈): **종눔** 신세에 설깨친 글 아는 게 우환 불러들이는 겨<1:35>
사죽(사족): 양키라면 사병이고 장교고 가리지 않고 **사죽**을 못 쓰고 덤비는<8:342>
사춘(사촌): 우리가 **사춘**성제간인디도 그런디<6:62>
손툽(손톱): 매타작 안헌 대신에 대껍데기로 **손툽** 밑얼 떳는디<8:262>
저구리(저고리): 색동**저구리** 치렁치렁 닐이고 근천떠는 것보담이야<9:28>

반면에 이 소설에서는 다른 방언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나타나는 부사어나 문법 형태소에서의 '오>우'실현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25) 배오-(>배우-): 요런 개명천지에서 **배와야** 산다.<3:264>
암스롱도 인사 안허는 버르장머리는 워디서 **배와** 처묵은 것이제?<3:321>
골고로골고로(>골고루골고루):
소작인덜헌테 **골고로골고로** 갈라준다고 혔다는디<1:153>

예문 (25)는 표준어에서는 이미 '오>우'의 변화를 거쳤는데도 <태백산맥>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남 방언 '오>우'의 변화에 대한 보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전설모음화

넓은 의미로 전설모음화는 움라우트를 포함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움라우트를 제외한 음운변동을 전설모음화로 분류하였다. 즉, 후행하는 'i'나 'j'가 없는 데 비전설 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변할 때를 전설모음화로 취급하였다. 역사적으로 전설모음화란 치찰음 /ㅅ,ㅆ,ㅈ,ㅉ,ㅊ/와 유음 /ㄹ/ 아래의 후설고모음 /으/가 전설고모음 /이/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어의 원순모음화와 함께 근대국어 단계에서 수행된 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 현상으로서, 국어의 모음 /으/와 /이/가 모음체계상에서 비원순계 고모음으로서 상관적 대립을 이루는 짝이 됨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희숙 1999: 521).

백두현(1992)에 의하면, 국어의 전설모음화는 18세기 후반의 경상도 방언을 반영하는 문헌인 《十九史略諺解》(1772)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며, /ㅅ/ 다음의 환경에서 가장 먼저 실현되고,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ㅈ,ㅉ,ㅊ/ 아래의 환경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고 하였다.

또한, 강희숙(1999:529-530)은 19세기 후기 전남방언에서의 전설모음화가 다른 음성 변화에 의해 생성된 이차적 환경에도 적용되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예문 (26)을 통해 확인하였다[19].

---

19) 예문은 전주에서 간행된 방각본 고소설 계열과 신재효본 판소리사설에 나타난 전라방언의 음운

(26)a. 죽은 **목심** 근신이 사라시니(변 618), **오짐**똥이 (治産歌, 673)
실푼 흔심 절노 난다(충열下,41a)
b. **보신**발노(춘, 남, 36), 과도이 **시러말고**(서러ᄒᆞ-, 대봉下, 23b)

(26a)의 경우는 선행하는 모음 /우/가 후행하는 순자음의 영향으로 원순성 자질이 중화되어 [으]로 실현된 다음 이차적으로 전설모음화가 실현된 것이라고 하였다. 예컨대, 중세국어의 '목슘'(命)은 일단 '목슴'으로 비원순모음화한 다음 전설모음화가 적용되어 [목심]으로 실현된 것이다. (26b)에 나타나는 '보신'(襪), '시러하-'(哀) 등의 경우도 원래 '보션', '셔러ᄒᆞ-'에서 모음 /어/의 상승 현상(vowel raising)에 의하여 가각 '버슨', '스러ᄒᆞ-'로 바뀐 후, 뒤이어 수행된 전설 모음화에 의하여 '보신, 시러하-'로 실현된 예이다(목슘>목슴>목심, 보션>버슨>보신, 셔러ᄒᆞ->스러ᄒᆞ->시러하-).

그러면 <태백산맥>에 반영된 전설모음화의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a. 가실(가을): 좋소, **가실**[20]에 쌀 반 가마니 내겄소.<4:144>
가심(가슴): 외서댁을 딱 보자말자 **가심**이 찌르르허드란 말이여.<2:38>
이년 **가심**이 뽀작뽀작 타요, 시방.<5:227>
말씸(말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고런 **말씸**이시.<1:289>
그리 **말씸**혀주신께로 아즘찬이 아즘찬이 또 아즘찬이구만요.<5:325>
무신(무슨): 밥 묵고 소화시킨다는 소화는 아닐 것이고, **무신** 뜻이요?<1:197>
상추쌈에 코 톡 쏘는 독 올른 풋꼬치가 빠지면 고것이 **무신** 맛이여.<9:122>
머심(머슴): **머심**살이가 머요, 머심살이가.<5:115>
b. 시님(스님): **시님**네덜이 그 바리때에 밥 담아 묵을 때마동 빌어줄 것잉께.<1:308>
시님, 주지**시님,** 질만 티워주심사 고것이야 지 심으로 허는 일인디<1:131>
찡(쯩): **찡**은 가지셨는게라?<1:168>
칭칭이(층층이): **칭칭이** 순사질얼 해댐서 <2:45>

론적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 최전승(1986)의 19세기 후기의 전라방언연구를 토대로 한 것임.
20) 가슬>ㄱ슬>ㄱ슬>가슬>가실

(28) 목심(목숨): 여그 논에 딸린 **목심**이 수백인디요.<6:38>
용궁이야 토꿩이가 **목심**이 경각에 달린 딘디,<9:206>
오짐(오줌): 요 **오짐**발 뻗치는 소리가 워떤가.<1:324>
오짐발에 눈이 녹고,<10:139>
장시(장수): 짜석 참 엿**장시** 맘대로시.<8:88>
가리(가루): 이삼월 칡얼 음지에 말렸다가 **가리**럴 내서 한 주먹씩만 묵으면<3:229>
아까징끼허고 다이야찡 **가리** 포는 것 읎소?<9:251>

예문 (27a)에서는 비어두 음절의 /으/가, (27b)에서는 어두 음절의 /으/가 각각 전설모음화되었다. 이러한 환경들에서 전설모음화는 이 소설에서 비교적 생산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인다. 역사적 발달을 고려해 본다면 (27a)와 같은 비어두 음절의 /으/에 먼저 적용되었던 전설모음화는 이어서 (27b)와 같은 어두 음절의 /으/로 확대 적용되는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예문 (28)의 예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의 전설모음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다른 음성 변화, 즉 '목숨, 오줌, 장수, 가루' 등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음절의 모음 /우/가 비원순모음화에 의해 /으/로 변화한 다음 전설모음화한 예들이다.

6.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피동화 모음의 종류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ㅁ,ㅂ,ㅃ,ㅍ/와 같은 脣子音 뒤의 '·>ㅗ'현상과, 같은 환경에서의 'ㅡ>ㅜ' 현상이 그것이다.

중세 한국어에 있던 음소로서 현대 한국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ㆍ'다. /ʌ/음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되는 이 음소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대개 'ㅏ'나 'ㅡ', 또는 'ㅗ'로 바뀌었다. 제1음절 'ㆍ'는 표준어에서 대부분 'ㅏ'로 변하였다. 그런데 방언에 따라서는 그것이 'ㅗ'로 변한 것이 있다. 주로 순음 다음에서인데 대표적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9)a. 몬지(塵)(<ᄆᆞᆫ지): 그 **몬지** 탱탱 쓸고, <9:28>
몰르-(干)(<ᄆᆞᄅᆞ-): 뽀짝 **몰르면** 불땀이사 더 좋아질 것잉께.<1:297>
b. 볿-(踏)(<ᄇᆞᆳ-): 그냥 **볿히고** 눌림스로 살자 고런 소리다요?<4:59>

볽-(明)(<붉-): 이 시상 일얼 내다보는 디는 그 눈이 **볽아야** 써. <4:57>

c. 뿔-(吮)(<뿔-): 그라먼, 이 엄씨가 니 붕알도 따묵고, 피도 **뿔아묵고** 그러라고<3:108>

뽀짝(乾)(<ㅂ짝): **뽀짝** 몰르먼 불땀이사 더 좋아질 것잉께.<1:297>

d. 폴세(己)(<ㅂ셔): **폴세** 한 뙈기럴 다 비부렀다요?<9:129>

포도시(僅)(<ㅂ드시): 니나 나나 소학교 **포도시** 나온디다가,<4:110>

폴(腕)(<폴): 손등·손목·**폴**·장딴지·허벅다리 같은……"<1:185>

폳(赤豆)(<폳): 콩이야 **폳**이야, 워째 그리 말이 많어. <5:141>

포리(蠅)(<ㅍ리): 양반, 고 숭악헌 눔덜, 쇠**포리**맹키로 징허고징헌 눔덜.<1:37>

폴-(賣)(<폴-): 세세허게는 몰르겄고, 논얼 딴 사람헌테 **폴아넴겠소.**<4:246>

예문 (29a)는 /ㅁ/, (29b)는 /ㅂ/, (29c)는 /ㅃ/, (29d)는 /ㅍ/ 의 순자음(脣子音) 아래서 제1음절 / · /가 /ㅗ/로 변한 현상이 <태백산맥>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은 남쪽으로 치우쳐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가 대표적이다. 그 이외에 특이하게도 함경북도 육진지방에서도 이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난다(이익섭 외 1997: 323-324).

7. 단모음화

현대국어의 모음체계는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로 되어 있다. 이중 모음에는 'ㅑ(ja), ㅒ(jɛ), ㅕ(jə), ㅖ(je), ㅘ(wa), ㅙ(wɛ), ㅛ(jo), ㅝ(wə), ㅞ(we), ㅠ(ju), ㅢ(ɨj)' 가 있다. 한편, 기세관(1981:50)에서는 전남방언의 이중모음을 'ㅑ(ja), ㅕ(jə), ㅛ(jo), ㅠ(ju), ㅘ(wa), ㅝ(wə)'의 총 6개로 설정 한 바 있다. 이중모음은 모음 요소가 '활음+주모음'의 두 개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ㅣ'를 발음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입을 벌려 'ㅏ'나 'ㅓ' 등으로 발음하는 등 처음 소리와 나중 소리가 다르다. 이러한 이중 모음은 때때로 단모음으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이중 모음 앞에 자음이 올 때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경향은 심화된다.

<태백산맥>에서도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반영하는 예들이 나타나는데 다음이 그 예이다.

(31)a. **가먼** 워디로 갈 것이다냐?<1:30>

니가 시집**가먼** 존대허지 말라고 혀도 우리가 알어서 헐 거이다.<4:193>
쩌짝 군사무소 옆댕이로 **가먼** 명색만 여관인 것이 있기넌 있제라.<7:235>
아덜만 끌어**가먼** 되얐제 워째 남정네꺼지 끌어가는 기여.<7:279>
새끼덜 배 안 곯리고 **살먼** 을매나 좋으까이.<7:102>
산등생이 **타먼** 사람이 을매나 뻰허니 잘 뵈는지 다 알겄제라?<8:102>

b. 연기가 **벨로** 안 나는 나무럴 순서대로 짚자먼, 일 맹감, 이 꽃대,<8:102>
말만 전허먼 정 사장이 다 알어서 헐 것이라고 **핀지**[21]에 씨였었소.<4:166>

c. 여펜네덜이 서로 미워허고 쥐어뜯고 혀서 좋 일이 **머** 있겄능가.<2:47>
그리만 됨사 우리 농새꾼들이야 **머**럴 더 바래겄어.<7:61>

d. 저 이쁜 인물에 저 조신헌 춤솜씨 **바라.**<6:128>

e. 냄편 그리 **숭악허게** 죽는 꼴 보고 얻은 마음병잉께<2:256>
신령님 앞이니께 무신 이약을 혀도 **숭**이 안 잽히고,<3:20>

예문 (31a, b)는 /j/가 탈락하여 'ㅕ>ㅓ'와 'ㅕ>ㅔ'로 된 현상이고, 예문 (31c, d)는 /w/가 탈락하여 'ㅝ>ㅓ'와 'ㅘ>ㅏ'로 양순음(ㅂ, ㅁ) 뒤에서 단모음화된 것이다. 예문 (31e)는 /ㅎ/이 어두에서 구개음화되고, /j/가 탈락하여 'ㅠ>ㅜ'로의 단모음화를 겪은 것이다[22].

8. 기 타

지금까지 논의한 언어적 사실 외에도 <태백산맥>에는 음운론적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언어 현상들이 더 발견된다.

한글 창제 후의 초기 한글 문헌에 쓰이다가 오늘날 쓰이지 않게 된 자모 중 대표적인 것으로 /ㆍ, ㅿ, 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당시 각기 음소를 대표하던 글자들인데 후대에 소실하거나 다른 음으로 바뀌면서 자연히 자모로서의 생애가 끝낸 글자들이다. 그런데 이 자모들이 대표하던 음소들이 변화를 겪은 상태가 방언마다 달리 나타난다. /ㆍ/는 앞에서 원순모음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ㅿ, ㅸ/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세 한국어에서의 /ㅿ/은 표준어에서는 완전히 탈락하여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

21) 편지>펜지(단모음화)>핀지(고모음화)
22) 흉악하게>슝악하게(구개음화)>숭악하게(단모음화)
흉>슝(구개음화)>숭(단모음화)

았다. 그런데 방언에 따라서는 이것이 /ㅅ/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 /ㅿ→∅(zero)/의 변화를 겪지 않은, 말하자면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방언들이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ㅿ/으로 표기되었던 것이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ㅅ/으로 유지되어 있는 단어들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2) -사(<-ᅀᅡ): 워디서 멀 허다가 **인자사** 오냐 금메.<1:70>
내사 사대육신 성헌께 무신 짓얼 혀서라도 새끼덜 굶기기야 허겄능가.<1:272>
고런 눈치 **있음사** 얼렁 감찰님헌테 귀뜸해야제라.<1:183>
가실(<ᄀᆞᅀᆞᆯ): **가실**허고 나먼 쭉징이만 수북헐 농새 지나마나 아니겄소?<1:154>
가실볕도 하로가 달브고 이틀이 달브제라.<6:10>
마실(<마ᅀᆞᆯ): 한약방도 담 **마실**에나 가야 있구만요.<7:111>
저리 **마실**마동 꼬실라뿔게 냅둬?<9:238>
모시(<모ᅀᆡ): 달구새끼덜, **모시** 안 주먼 시나부로 비틀어져 죽든지,<6:97>
무시(<무ᅀᆞ): 그리 **무시** 치대끼 생각덜 마씨요.<9:295>
여시(<여ᅀᆞ): **여시** 겉은 눔, 워째 고런 생각꺼정 세세허게 허고 앉았다냐.(3:217)

예문 (32)에서 보는 것처럼 /ㅅ/이 유지되는 지역은 경상도와 전라도 및 충청도에 걸치는 남부 지역을 비롯하여 함경도도 포함된다(이익섭 외 1997: 324-325).

한편 중세 한국어의 /ㅸ/이 /ㅂ/으로 남아 있는 방언도 있다. 이 현상은 /ㅿ/이 /ㅅ/으로 남아 있는 현상과 모든 점에서 평행적이다. /ㅸ/도 /ㅿ/과 마찬가지로 유성음 사이에만 분포되었던 음소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ㅸ>w/의 과정을 밟아 /ㅸ/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방언에 따라서는 그러한 음운변화를 겪지 않고 오늘날 까지도 /ㅂ/을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그러하다. 또 표준어의 /ㅅ/변칙활용이 방언에서 규칙활용을 하듯이 표준어의 /ㅂ/변칙활용이 방언에서 정칙활용을 하는 것까지 흡사한 양상을 보아는 것이다. 더욱이 /ㅅ/이 유지되는 지역과 /ㅂ/이 유지되는 지역도 공통되는 바가 있다. 즉 경상도와 전라도를 위시하여 일부 충청도 등의 남부 지역에 걸칠 뿐만 아니라 함경도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만큼 /ㅿ/과 /ㅸ/에 관련된 방언현상은 서로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백산맥>에는 /ㅸ/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다음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33) 칩어-: 날은 **칩어**지고, 워찌들 될란지.<4:64>

드럽-: 시상이 **드러바서** 나가 가심에 든 말 하나또 못허고 있다는 것이나 알어두씨요.<6:105>
부럽-: 나넌 똑 **부러바** 죽겄구마.<3:67>
치자물 딜인 모시 치매저구리 **부러바허든** 속창이리 읎는 지집도 아닝께라. <8:234>
아깝-: 오늘 얼어죽게 추운디도 이약 못 듣는 것이 **아까바** 이리 왔당께요.<4:103>
된장, 꼬치장도 **아까바서** 퍼답고 그랬구만이라.<6:97>
우습-: 아이고 참말로 **우스버라.** <4:153>
무서바-: 정 사장눔헌테 우리가 헌 것 보고 지눔헌테도 그럴랑가 **무서바** <4:50>
맥엄씨 산얼 **무서바**허고 겁묵을 일도 아니고,<7-209>
죄송시럽-: 야아, 당최 **죄송시러바서**……<2:103>
요것 참말로 **죄송시러바서**……<9:160>
미안시럽-: 빈손으로 오기 **미안시러바** 쪼깨 갖고 왔는디,<4:187>
죽은 동지덜헌테 죄시럽고 **미안시러바** 똑 죽겄는디<7:107>
걱정시럽-: 성님이 **걱정시러바서** 허는 소리요.<4:244>
요상시럽-: 동드랑 동동 허는 장단얼 들으면 맴이 **요상시러바**진당께.<6:127>
징상시럽-: 저 문딩이 웃는 거 참말로 **징상시러바** 못 보겄네.<5:74>
근천시럽-: 사람가치 떨어지고 **근천시러바**지고 그렇제.<5:129>
남새시럽-: 지주덜이 논만 안 빼돌렸음사 **남새시러바서도** 못헐 짓거리랑께라.<6:22>
옹색시럽-: 말 안헐라고 헌 것이 요런 대목 말허기가 **옹색시러바서**<6:114>
한시러바-: 서럽고 **한시러바** 여자덜이 불른 여자노래제.<4:57>
모지락시럽-: 그 문딩이 맘뽀가 **모지락시러바** <4:189>

예문 (33)은 /ㅂ/이 유지되는 단어인 동시에 /ㅂ/ 정칙활용을 하는 예문이다. 표준어에서 /ㅂ/은 변칙 활용을 한다. 변칙 활용이란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을 가리키는데, /돕다/가 /도와/, /곱다/가 /고와/로 변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에 반해 예문 (33)에서는 /춥다/가 /칩어/, /드럽다/가 /드러바서/, /부럽다/가 /부러바/, /아깝다/가 /아까바서/, /우습다/가 /우스버/, /무섭다/가 /무서바/, /-시럽다/가 /-시러바/로 정칙활용을 하고 있는 점에서 표준어와 다르다.

Ⅳ. <태백산맥>의 형태론

1. 문법 형태

문법 형태에서는 <태백산맥>에 반영된 조사와 어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사는 크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그리고 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 어미로 나누어 그 양상과 쓰임을 보도록 한다.

1.1 조사

1.1.1 격조사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발견되는 격조사의 형태를 보면 전남방언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격조사의 분류는 이기갑(2003:29-115)의 조사 분류 체계에 따른 것이다[23].

<표 11> 전남방언의 격조사 분류 (이기갑 2003:29-115)

종 류	전 남 방 언	비 고
주격	**이**/가, 이, **이가**	'이' 例. 여자 한나이 그 집안 잘 맨들았어.
목적격	을/를, **얼/럴**, ㄹ	
여격	게, 께, **한테**(**헌테**), 한티(**헌티**), 보고, 보다가, 드러, 떠러	
관형격	**에**, **으**, 우, ㅅ	
공동격	**허고**, 하고	
비교격	**겉이**	
	보다, 보단, **보담**, **보덤**, 보돔, 부덤	'보다' 계열
	철로, 치로, 칠로	'처럼' 계열
	a. 마니, 마이, 아니로, 마이로, 마로, 말	'만'계열

23) 학교문법에서는 격조사를 주격, 목적격, 관형격, 보격, 부사격, 호격, 서술격의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로, 매니, 매이, 매니로, 매이로, 매니롱, 매로 b. **맹이**, 맹기, 맹기로, 맹이로, 맹으로 c. 맹키, **맹키로**, 맹클로 d. 마냥, 마냥으로, 마냥이로 e. 만치로, 만칠로, **맨치로**, 매치로	
	만큼, 만치, 만침, 만	'만큼'계열
호격	**아**, **야**, 요	

(34)a. 물오리 날르는 것 봉께로 **저녁이** 다 되얐는갑다.<3:254>
니하고 나하고 새에 감추고 덮고 할 일이 **머시가** 있냐.<4:108>
b. 워메 이 **일얼** 으짤끄나<1:46>
엄니, **엄니럴** 속이잔 것이 아닝께 쪼매만 참소.<1:205>
이눔에 **모강댕이럴** 작두에 대고 챡 쳐뿔고 잡은 생각이<3:342>
c. 여자가 지 속으로 빼낸 **새끼헌티** 젖꼭지 한분 물려뿌렀다 허먼<6:105>
빨치산**헌테** 산은 아그**한테** 엄니 품이나 같은 겨.<7:209>
d. 고것덜이야말로 동지덜**에** 웬수고, 인민에 적인디.<9:334>
남**으** 땅만 파묵고 살자니께 황천이 눈앞이제.<1:296>
……불쌍헌 망제님 천고**에가** 맺혔는가 만고에 맺혔는가.<6:131>
e. 지는 **동지들허고** 함께 묵을랑마요.<1:146>
엄니 핑 댕겨올 것잉께 **동상허고** 싸우지 말고 잘 델고 놀아야 써.<2:53>
f. 서운상이헌테 또 전번**맨치로** 굽신굽신험서 워쨌거나 소작만 부치게 해도라고<4:49>
주먹뎅이**만** 하다아……<4:132>
구렝이**보담**도 징허고 징헌 눔아.<2:40>
산이나 넘**보덤** 쪼깐 빨르게 타고,<8:196>
방죽이 엄니 한숨**맹키로** 길어?<3:251>
워째 윤가 집구석 딸년덜언 인물이란 것이 두리뭉시리 메주**맹이**덜이여.<8:105>
물탱이**겉은** 손지 더우믹일까 무서바 못 딜꼬 왔구만이라.<7:52>
g. 불쌍헌 내 **새끼야,** 장개도 못 가고 니가 죽다니, 워쩔끄나 아아<3:342>
이 **반동들아!** 네놈들을 깡그리 바닷물 속에 처넣고 말 테다.<4:11>

위의 예들 가운데 (34a)는 주격, (34b)는 목적격, (34c)는 여격, (34d)는 관형격, (34e)는 공동격, (34f)는 비교격, (34g)는 호격 조사들이다. 전남방언의 주격 조사

는 표준어와 같이 '이/가'가 쓰이며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로 실현된다. 또한 (34a)의 '머시가(무엇+이가)'처럼 동북방언과 동남방언에서 두드러진 자음 뒤에서 '이' 대신 '이가'가 쓰이는 현상(김병제 1988: 63, 정용호 1988: 190, 최명옥 1980: 37-38)도 발견된다.[24]

또한, 목적격 조사로 '-을/를'이 쓰이는 점에서는 표준어와 다를 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4b)와 같이 '-얼/럴'로 실현되기도 한다.

<태백산맥>에 반영된 여격조사로는 (34c)와 같이 '-헌티'가 보인다. 표준어에서 '-에게'는 문어체로 알려져 있으며, '-한테'는 '-에게'에 대응하는 구어체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어체로만 존재하는 전남방언에서 '-에게'가 쓰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남 방언 발화에서 '-에게'를 찾기는 쉽지 않으며, '-한테/-헌테/-헌티'가 생산적으로 쓰이는 형편이다. (이기갑 외 1998d: 67)

예문 (34d)의 '에/으'는 관형격 조사로 표준어'의'와 대응된다. '에가'의 '가'는 동사 '가-'에서 문법화된 것으로(이기갑:1987, 이태영:1988) 동사 '가-(去)'는 의미 속성상 처격 조사 '에'나 '한테'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주어는 [+유정]의 의미 자질을 갖는다.

예문 (34e)에서의 '-허고'는 공동격 조사로 중앙어의 '-하고'에 대응한다. 예문 (34f)는 비교격 조사들이다. 표준어에서 비교격 조사는 '-하고, -만큼, -보다, -처럼, -와/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문어체적 성격이 강한 '-와/과'는 전남 방언에서 쓰이지 않고 그 자리를 중앙어의 '-하고'에 대응하는 '-허고' 또는 '-랑'이 맡고 있다.[25] 전남방언에서는 '-만큼'과 같은 의미로 '-만치/-만'이 쓰인다. '-만치'는 '-만큼'과 '-같이'의 혼태어(blending)로 생각되는데, '-만치'는 때때로 '-맨치/-마치'로 실현된다. '-만치'는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며, 표준어의 '-만큼'이 가졌던 '근거나 까닭'의 의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표준어의 '-보다'는 전남방언에서 '-보다'외에 '-보담/보덤/보돔' 등으로 실현된다.

표준어의 '-처럼'이나 '-같이'의 의미를 갖는 조사로 전남 방언에서는 '-마니/매니/마이/매이/맹키/맹이' 등이 쓰인다. 이들 형태에는 다시 조사 '-로'가 덧붙어 쓰이기도 한다. '-마니/매니/맹키/맹이'는 지정사와 결합하여 중앙어의 '같다'의 뜻을

---

24) 이기갑(2003:33)은 자음 뒤의 주격 조사 '이가'는 '이/가'의 형태적 변동이 '이가/가'로 단순화된 결과이며, 이러한 변화가 더욱 진행되어 조사 '이'가 '이가'로 완전 교체되면, 그때는 '이'가 매개모음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5) 니 처:지가 나허고/나랑 같냐?

갖기도 한다.[26] 또, 중앙어의 '같다'는 '겉다' 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문 (34g)는 전남 방언의 호격 조사로 표준어처럼 '-아/야'가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여, -이시여'와 같이 시적인 표현 등은 이 방언의 일상적 발화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1.2 보조사

특수한 뜻을 더하여 섬세한 의미차를 가져오는 보조사는 표준어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제격의 '은/는'이 '언/넌'[27]으로, 출발의 '부터'가 '부텀'[28]으로, 각각의 '마다'가 '마동'으로, 일양(一樣)[29]의 '씩'이 '썩'으로 실현된다. 다음의 <태백산맥>에 반영된 보조사의 예를 보도록 하자.

<표 12> 전남방언의 보조사 (위평량 2004a:160)

의 미	전 남 방 언
대조	은/는, **언/넌**[30]
역시	**도**, **꺼지**, **꺼정**, **할라**
유별남, 강조	**이사/ 사**
시작, 먼저	**부텀**
균일	마다, 마닥, 마당, 마도, 마독, **마동**, 마지
일양(一樣)	**썩**
단독	**만**

(35)a. 그 미친 눔이 즈그 아부지도 탁허고, 지도 탁헌 아덜 날 **생각언** 안허고,<4:229>
우리넌 당최 미안시럽고 면목이 읎어 얼굴을 들 수가 읎소.<4:212>
b. 물만 묶고 젼디는 **것도** 한도가 있제.<4:292>
워따 **인사성도** 볽다.<4:188>
금강산 지내 **백두산꺼정** 갔을 것이다.<1:138>
읎는 살림에 **맘고상꺼지** 허고 사는 판에 몸이나 실해야제.<3:330>

26) 생긴 것이 꼭 사람맹이다/사람맹이여/사람맹이구만.
27) '은/는'의 모음하강현상이다.
28)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31e)'부텀'은 'ㅁ'이 첨가된 형태이다.
29) 일양(一樣): 한결 같은 모양
30) '은/는'의 모음하강현상.

외서댁은 **맘씨할라** 이쁘시웨.<2:39>

c. 뽀짝 몰르먼 불땀**이사** 더 좋아질 것잉께.<1:297>

내사 몰르겄소. 조성댁이 불르씨요.<4:192>

오늘사 헌다는 소리가 그간에 밥얼 한 끼니도 안 믹이고<2:58>

d. 정 사장 **때부텀** 부치든 작인 넷이 있는디<4:279>

e. 사람 쥑이는 거 **날이날마동** 보자니께 환장허겄구만요.<1:66>

f. 솥에 고구마 들었응께 이따가 두 **개씩** 갈라 묵어라.<1:275>

g. 말허는 **입만** 아프제.<4:292>

위의 예들 가운데 (35a)는 주제, (35b)는 역시, (35c)는 강조, (35d)는 출발, (35e)는 각각, (35f)는 일양(一樣), (35g)는 단독의 뜻이다. 단, 역시의 (35b) '도'와 단독의 (35g) '만'은 표준어와 같다.

예문 (35b)의 '-꺼정', '-꺼지'는 표준어의 보조사 '-까지'에 해당하는 방언형으로 중세국어의 'ㄱ장'의 후대형이다. 중세국어 당시의 'ㄱ장'은 현대어의 '-까지'와 '-껏'의 두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전남방언의 '-까장'에서는 '-껏'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기갑외 1998d: 75)

한편, '-마저'나 '-조차'의 의미와 유사한 보조사로는 (35b)와 같이 '-할라'가 쓰인다.[31]

---

31) 이기갑 외(1998d:74-75)에 따르면 이 '-할라'계의 조사는 다음과 같이 전국 여러 방언에 그 대응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예)a. 니**하부랑** 그러케 말로 안 들으모 나는 우짜란 말이고?
(너조차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b. 아:덜**아부라** 다 가구 없으.(아이들조차 다 가고 없어.)
나**암사라** 못 가문 앙이 됩지.(나조차 못 가면 안 되지.)

c. 나**암불라** 안 가문 되갓소?(나조차 안 가면 되겠어?)
너**암걸라** 달라구 그르믄 어카간?(너조차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d. 늙기도 섧경 짐**알롸** 진단 말가?(늙기도 서러운데 짐조차 진단 말인가?)

(a)는 영남 방언으로 '-하부랑'의 형태로 쓰이며, (b)는 평안도 방언으로 '-아부라'나 '-암사라'가 쓰이고, (c)는 함경도 방언으로 '-암불라'나 '-암걸라'를 사용하며, (d)는 제주도 방언으로 '-알롸'형을 쓴다. 이들 여러 형태를 비교해 대체로 '*-하부라' 정도의 원형에서 퍼져 나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조사 (35c)의 '-이사'는 표준어의 '-이야'와 수의적 변동을 보이는데, '-이사'의 경우 전남 방언에서는 조사 '-이'없이 그냥 '-사'로만 쓰일 수 있다. 한편, 어미로 굳어진 '-음사'의 경우는 /ㅁ/ 뒤에서도 '-이사'의 형태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사'에 '-말고'가 붙어 쓰이면, '하필'의 뜻을 전제한다. 즉 '오늘(에)사 말고'는 '하필 오늘에야'의 뜻을 표현한다. 이때 조사 '-사'앞에 올 수 있는 명사는 시간 명사들, 예를 들어 '오늘, 여름, 금년,…' 등이다.

1.1.3 접속조사

두 명사를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접속조사로서 전형적인 표준어의 '와/과'는 전남 방언에서는 쓰이지 않고, 대신 '-허고, -랑' 등이 쓰인다.

(36)a. 이 애비가 산 시상**허고** 니가 살 시상**허고**는 생판 달블 것잉께.<1:129>
b. 요눔에 시상 더 살고 잡은 생각 읎은께 느그**랑** 나**랑** 항꾼에 죽자!<6:208>

예문 (36)의 '-허고, -랑' 은 원칙적으로 이어지는 둘 이상의 명사 다음에 붙지만, 경우에 따라 맨 마지막의 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32)]

1.2 어미

1.2.1 종결어미

일반적으로 종결어미는 상대높임의 등급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한다. 표준어의 경우 상대 높임법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네 개의 등급, 곧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으로,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두루높임'과 '두루낮춤'이라는 두 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이기갑(1998c)의 전남방언의 상대높임 체계에 따르면, 전남방언의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상대 높임은 중부 방언에 존재하는 아주높

32) '-허고'와 '-랑'은 뒤섞여 쓰일 수 있으며, 이때는 '-허고'가 '-랑'보다 앞에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예) 괴기허고 밥이랑 준비되았다. // ?괴기랑 밥허고는 준비되았다.

임과 예사높임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세 개의 등분만을 갖는다. 아주높임과 예사높임이 통합된 형태인 '허씨요체', 예사낮춤에 해당하는 '허소체', 아주낮춤에 해당하는 '해라체'가 그것이다.

다음 표는 종결어미에 따라 전남방언의 상대 높임 체계를 분류한 표이다(이기갑 1998c).

<표 13> 전남방언의 상대 높임 체계 (이기갑:1998c)

화계 / 서법	아주높임 (허씨요체)	예사낮춤 (허소체)	아주낮춤 (해라체)	두루높임 (해라우체)	두루낮춤 (해체)
서술	**-소/요/ 으요**/우, -읍디다/-습디다	**-네/-데/** -세/**-시,** -니,-음세	**-으께,**-은다, -니라,-으마, **-응거**(감탄), -구라(감탄), -구만(감탄), -어라(감탄)	**-라우, -요**/-이다 (전남동부), - 이 람 닌 짜 (진도)	**-여/-제/** -제라, **-께,-마,**
물음	-소/요/ 으요/우, **-읍디여/-습디여**, -읍디까/-습디까, -읍디껴/-습디껴, -읍딩겨/-습딩겨	**-은가/-는가, -은고/-는고,** -으께	**-냐,**-이, -으리,-으랴, -으른(완도), **-으까,** -으끄나, **-을끄나,** -으끈,-으껀, -으꼬	**-라우, -요**/-이다 (전남동부), - 이 람 닌 짜 (진도)	**-어**/-**여**, **-제, -꼬/-감/ -까/ -가,** -메/-멩
명령	**-으씨요** -으이다(전남 동부 일부)[33]	**-소** -게(전남 서남부 섬지역 일부) -드라고	**-어라**	**-라우,** -이다 (전남동부)	**-어**, -제
청유	**-읍시다**	**-세, -드라고**	-자	**-라우,**	-어, -제

				-이다 (전남동부)	

그러면 <태백산맥>에서 드러난 '허씨요체'의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7)a. 세무서장이 폴세부텀 자기헌테 폴으라고 생 난리단 말이**요.** <10:256>
요분에 빨갱이 씨럴 말려뿌러야 **허요.** <1:173>
b. 와따메, 택도 옳**소.**<9:348>
b. 심청이가 닭아 닭아 울지럴 마라 혔던 맴얼 인자사 알아묵을 것 겉**으요.**<4:266>
(38) 고런 맘이 워디 나 혼자뿐이었을**랍디여?**<1:65>
어지께로 몇 분째 왔**습디여**?<6:265>
(39) 그냥 되짚어올 것잉께 아무 걱정 **마씨요.**<1:33>
들어**봇씨요.**<5:29>
아부님, 주무**시씨요.**<1:34>
아부지이, 진지 **잡수시씨요오**, 진지.<7:78>
글먼 논 사딜인 사람이나 **갤차줏씨요.**<4:248>
장시 잘해갖고 이문 톡톡허니 냉게**오씨요**이<4:264>
(40) 미안시럽게 됐응께, 싸게 **갑시다.**<5:10>

위의 예들은 모두 '허씨요체'의 종결 어미가 쓰인 문장들로, (37)에서는 서술의 기능을, (38)은 의문의 기능을, (39)는 명령의 기능을, (40)은 청유의 기능을 각각 그 서법적 기능으로 갖는다. '허씨요'체를 이루는 대표적인 종결어미로 '-요/-소'가 있는데 이는 선행하는 소리에 따라 모음이면 '-요'(37a), 자음이면 '-소'로 변동한다. 다만 '있-, 없-, -았-, -겄-'을 제외한 자음 아래에서는 '-소' 외에 '-으요'가 오기도 한다(37c). 또한 (38)의 중앙어 '-읍디까/습디까'에 해당하는 '-읍디여/습디여'는 전남의 전역에 두루 쓰이는 의문형이다.[34] 명령형으로는 (39)와 같이 '-으

33) -이다>-이다: 묵(으)이다→드십시오
34) 이기갑(1998c:367)에 의하면 형태 '-까' 대신 '-여'가 쓰이는 예는 완도 지역에 나타나는 '-읍니여(=-읍니까)'나 '-을랍니여(=-으렵니까)'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 '-을랍니여'의 예는 전남의 서남부 지역에서 형태 '-여'가 회상의 '-드-' 외에 '-니-' 다음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인데, 그러나 전라남도의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가 오직 회상 시제 형태소 '-드-' 다음에서만 나타나는 제약을 갖는다고 한다.

씨요'가 있다. '-으씨요'는 기원적으로 '-읍시오'에서 왔다. '-읍-'의 /ㅂ/ 때문에 '-시-'가 된소리로 변하고 이후 /ㅂ/이 탈락되어 '-씨요'가 생겨난 것이다. (40)에서와 같이 전남방언의 '허씨요체'의 청유형은 중앙어와 같은 형태인 '-읍시다'가 쓰인다.[35]

'허소체'는 전남 방언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 말투이다. 이 말투에 속하는 형태로는 '-네, -은가, -소/게, -세, -음세, -으께?, -드라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정래의 <태백산맥>에는 '허소체'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41)a. 나도 그리 되길 바랬는디 뜻대로 안 되야뿌렀**네**<4:265>
주뎅이 철벼을 허고 자빠졌**네**이.<7:103>
b. 하먼, 자네보담 이쁘고 찰방진 여자가 쩌짝에 있**데.**<4:263>
고런 소문이 딛기**데.**<6:23>
c. 사람이 서로 바꽈진 것이**시**<7:66>
나**시나** (나일세, 나).<7:11>

(42)a. 평생 생각허고 싶지 않았던 이약이지만 술기운 빌레 해야지 어쩌겄**는가.**<4:271>
서엉! 나 말 안딛**긴가.**<7:316>
b. 엄니, 그렇게 미친 거맹키로 굿허고 요리 아파불면 무신 소양이 있**당가.**<1:25>
선생님, 어쩔라고 이러신**당가**요.<1:73>
장작만 사고 솔가리는 안 사겄다, 고런 말이**당가?**<1:297>
c. 허, 당최 무신 놈에 자다가 봉창 뚜딜기는 소리럴 그리 요상시럽게 허**는고?** <4:166>
거 인민군 어깨에 붙은 표식이 워째 뻘건 것에서 퍼런 것으로 변했**는고?**<7:66>

(43) 워메 내 새끼 꼬막 무치는 솜씨 잠 보**소.**<1:97>
성은 성잉께 먼첨 골르**소.**<7:318>

(44)a. 성, 나 다리 아파 죽겄는디 쪼깐만 쉬다가**세,** 고구마 묵음시로 말이시.<7:316>
술안주 삼아 듣**세.**<4:271>
b. 시장헌 판인디 얼렁 하나썩 묵어보**드라고**<3:146>

---

35) 다만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중앙어와 같으나 어른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청소년 이하의 세대가 [-격식]의 상황에서 친밀한 어른에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어와 다른 면이 있다(이기갑 1998c: 364).
· 아부지, 언능 갔다 오십시다. (=아버지, 얼른 갔다 오십시다.)

위 예들 가운데, (41)은 서술의 기능을, (42)에서는 의문의 기능을, 또 (43)에서는 명령의 기능을, (44)에서는 청유의 기능을 각각 그 서법적 기능을 갖는다. (41)의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술의 기능을 갖는 '허소체'의 종결어미로 '-네, -데, -시' 등이 발견된다. '-네'는 동작이나 상태의 진술을, '-데'는 회상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네'와 비슷한 의미로 전남방언에서는 '-시'가 쓰이는데 이것은 주로 지정사 '이-' 또는 '아니-' 다음에 오는 점에서 표준어의 '-ㄹ세'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의문의 기능을 갖는 (42)의 '-은가/-는가'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로, '-은가'는 모음 다음에, '-는가'는 자음 다음에 쓰이는 것이다.[36] 또, 역사적으로 '-는가'와 '-는고'는 의문사의 유무에 의해 달리 쓰였으나 현재의 전남방언에서는 이 대립이 사라지고 그 흔적만 남아있다. 즉, 예문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가/는가'는 의문사가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으며, 오직 '-은고/는고'에서만 물음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기갑 1998c: 372).

(45)a. 내 말 들어줄랑**가?**<7:316>
엄니, 아부지 **<u>워치께</u>** 됐는**가?**<3:144>
자네 몸 상헌 디 읎는**가?**<2:183>
뱅골댁, **<u>워쩔라고</u>** 고런 약조를 다 허는**가?**<1:184>
b. 산에 들어간 사람덜언 **<u>워찌</u>** 되는**고?**<5:200>
<u>워쩔라고</u> 요리 오래 가둬두는**고?**<6:310>

따라서 두 형식은 더 이상 의문사에 의한 대립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37]

명령형 종결어미 (43)의 예 '-소'는 표준어의 '-게'에 해당한다. 이 '-소'는 표준

36) 현재의 표지 '-느-'가 전남방언의 많은 환경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역사 때문에 전남방언의 '-은가'도 '있-'류의 일부 표현들('있-, 없-, -었-, -겄-')에서만 '-는가'로 나타날 뿐 나머지 환경에서는 '-은가'로만 실현되고 있다.

37) 오히려 두 형식의 기능 차이는 물음의 직접성에 달려 있다. '-은고/는고'는 '-은가/는가'와 같이 상대에게 직접적인 물음을 던지는 기능보다는, 말할이의 혼잣말이나 완곡한 물음을 나타내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문 밖에서 소리가 났을 때, "거그 누군가?"라고 물으면 사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사람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거그 누군고?"는 우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은가'가 사용된 물음보다 약할 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물음의 직접성에도 훨씬 떨어지는 말맛을 풍기고 있다(이기갑 1998c: 374).

어에서도 이미 16세기 초기 문헌인 '번역노걸대'에 보이기 시작하며 이후 18세기까지 그 형태가 여러 문헌에 나타나다가 '-게'로 대체되어 사라진 형태이다. 따라서 전남방언에서 '-소'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어형이 '-게'로 대체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결과인 것이다.

또한, '허소체'의 청유형 종결어미의 예로는 (44)에서와 같이 '-세'와 '-드라고'가 있다. 청유형 표현 '-세'는 표준어와 완전 동일하며, '-드라고'는 상대에 대한 간접적이며 완곡한 명령이나 청유를 나타낸다.

다음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표준어의 아주낮춤에 해당하는 '해라체'의 종결어미들을 보자.

(46)a. 느그넌 좋겠다, 배터지게 묵은**께**<5:263>
b. 워메 참말로 환장허겄**등거.**<1:63>
워메, 고때 사람 미치겄**등거.**<1:63>
(47)a. 짜가 시방 무신 뜽금없는 소리 허고 앉었다**냐?**<4:293>
행에 니 같을라디야. 워써**냐,** 니넌?<4:295>
빙신짓 혼자 다 해놓고 머시가 잘났다고 머리채럴 잡**냐.**<5:112>
b. 어떤 년언 복이 넝쿨로 늘어져 대가리 마누랜디도 매타작은 안 당허고 저리 씽씽헐**까**잉.<2:43>
워째 탱크가 다 사람헌테 지**까?** <8:152>
c. 빨갱이허고 연애치는 사인디 저것은 삘건 물 안 들었**을끄나?**<5:157>
탁배기 나올라면 당아 멀었**을끄나?**<9:130>
(48)a. 주딩이 찢어지기 전에 싸게 짐이나 **싸!**<5:110>
b. 아나, 이따가 갈 적에 가지고 가**그라.**<1:266>
우선 장흥 이모집으로 가 있**그라.**<4:28>
나다, 싸게 문 따**그라.** <4-141>
야아야, 덕순아! 일 오니라. 떡 한쪽 묵고 불 때**그라.**<4:188>
그려, 욜로 들어서 한 두둑썩 캐**그라.**<7:318>
c. 싸게싸게 짐치 내오**니라.**<4:65>

'해라체'의 의문형 어미로는 '-냐', '-으까'가 있다. '-냐'는 표준어의 '-느냐' 또는 '-니'에 대응하는데, 전남 방언에서는 '-느-' 없이 항상 '-냐-'로만 쓰인다. '-으까'는 표준어의 '-을까'에 대응하는 형태로 말할이의 의향이나 추정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묻는데 쓰이는 것이 보통이며, 때로는 혼잣말로 쓰일수 있다. '-으까'와 같은 뜻으로 '-으끄나'가 쓰이기도 하는데, <태백산맥>에서는 (47c)와 같이 'ㄹ'이 탈락되기 이전 형태인 '-을끄나'가 발견된다.

예문 (48)에서와 같이 명령형 어미로는 표준어와 같은 '-어라'가 쓰인다. 이 외에도 '-그라, -니라'가 '해라체' 종결어미로 쓰이는데 '-그라'는 (48b)와 같이 '가-' 외에도 다른 동사에까지 확대되어 쓰이고, '-니라'는 (48c)와 같이 동사 '오-'(來)에만 쓰인다.

다음으로,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높임법으로는 '두루높임'과 '두루낮춤'이 있는데, 우선 '두루높임'에 해당하는 이른바 '해라우체'가 있다. 이 '해라우체'는 표준어의 '해요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허씨요체'와 동일한 높임의 등급을 갖는다. 다음 예문은 '해라우체'를 보이는 종결어미들이다.

(49) 중풍얼 오래 앓았다**요.**<2:60>
빳긴 지 밥그럭 찾아묵는 일도 못헌다먼 고것이 무신 사내새끼다**요.**<1:31>
워메, 워메, 김칫국물 묻은 손꾸락을 워디다 땀는다**요.**<1:302>
어두버 잘 안 뵈시는 모양인디, 저 아랫목에 앓아누셨구만**요.**<1:19>
음마, 말씨가 우리 전라돈디? 집이 워디시랑가**요?**<7:110>

(50) 어지께밤에 좌익시상이 되야부렀어**라.**<1:61>
어르신 구헐라고 나선 그 하대치란 사람 말이어**라우.**<1:64>
아니요. 쪼깨 아플라고 혀서 칙간에 갔어**라우.**<2:51>
기차가 와야 탈 것 아니겄어**라우?**<1:171>
사장님이 전화로 군인덜 불른 것 아닌게**라우?**<3:132>

예문(49)는 '요'가 (50)은 '-라우(-라)'가 쓰여 '해라우체'를 담당하고 있다. '해라우체'의 종결어미로 표준어의 '-요'에 해당하는 '-라우(-라)'가 평서, 의문, 명령에 두루 나타난다. 다만 <태백산맥>에서는 '-라우'형태보다 '-라'형태가 더 많이 발견된다.[38]

한편, '두루낮춤', 곧 '해체'는 다음과 같은 종결어미들이 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종결어미는 바로 이 '해체'에서 나타난다. 이는 작품

38) 표준어의 '-요'에 해당하는 형태는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로 '-라우'와 '-요', 동부 일부지역에서 '-이다'인데, 순천지역에서 주로 '-요'가 사용되고 있다(이기갑 1986: 80).

의 배경이 되는 남도의 토착민들 사이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친밀도에 따른 섬세한 의미 차를 가진 대우의 방식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위평량 2004a: 168).

(51) 내 나이 생각허고 그냥 허는 소리**여.**<1:32>
물만 묶고 젼디는 것도 한도가 있**제.**<4:292>
우리 농새꾼 눈 속이고 등까죽 벳길라고 뎀비는 판굿뿐이랑**께.**<7:132>
한집서 선 든 밥얼 내등**마.**<4:54>
메칠 안으로 끌탕이 빠질 것잉**마.**<9:26>
(52) 양반 세도에 계집종 조께 밨다고 그 거이 머 숭이겄**어?**<4:108>
되나케나 사람 잡아딜여 빨갱이 맹그는 무선 시상이란 것 니 알**제?**<4:294>
근디, 워째 냉돌인디도 발이 안 시렀을**꼬?**<4:203>
워째, 참말로 그눔에 쎄가 빠지고 잡아 그러능**감?**<1:293>
그 국회의원이란 주벅 그눔덜 손에 쥐준 것이 뉘기**여?**<5:209>
우리 남정네덜이 워디가 모지랜 것 아니**까아?**<5:75>
사람 나고 돈 났디끼 핏줄이 먼첨이제 사상이 먼첨이드**랑가.**<7:18>
(53) 그리 탄복허덜 말**어**<6:128>

예문 (51)은 평서형으로 '-여, -제, -께, -마' 등이 발견되고, 예문(52)는 의문형으로 '-어/여, -제, -꼬, -감, -까아, 랑가' 등이, 예문(53)은 명령형으로 '-어' 등이 발견된다.

강희숙(2003:16)에 의하면, 예문(51, 52)에서 쓰인 종결 어미 '-제'는 화자의 완곡한 의견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 의문의 억양을 가질 경우에는 상대의 의향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는 물음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명령의 경우는 상대에 대한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은근히 부추기는 권유로 쓰인다고 한다.

1.2.2.연결어미

(1)대등적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중 나열의 의미를 가진 '-으면서'에 해당하는 어형은 <태백산

맥>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4> 전남방언의 대등적 연결어미 (위평량 2004a:161)

의 미	전 남 방 언	표 준 어
나열	-믄서, **-ㅁ서, -(으)ㅁ시로,** -ㅁ스로(롱),	-(으)면서

(54) 칭칭이 순사질얼 해**댐서** 사람얼 꼼지락얼 못허게 닥달해대는 판에<2:45>
가을 하늘은 물 속맹키로 투명**혐시로** 먼 것이 싸아허게 추운 기색이고,<9:18>
이 동무가 그리 화통허게 생각헌께 옆엣 사람도 맘이 씨림**스롱**도 좋으요.<9:316>

예문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으면서'가 축약된 형태인 '-은서/-음서'로 쓰인다. 또 '-으면서'에 '는'이 결합될 경우 '서는'은 다양하게 변이하는데 <태백산맥>에는 '시로/스로'와 '스롱' 형태가 발견된다. 또, 위의 형태는 대등적 연결어미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인과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의 경우에도 같은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39].

(2)종속적 연결어미

앞의 문장을 뒤의 문장에 종속적으로 이어 주는 어말 어미를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하는데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발견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태백산맥의 종속적 연결어미 (위평량 2004a:162)

의 미	태 백 산 맥	표 준 어
조건	**-(으)면, -ㅁ사**	-으면
인과	**-ㅇ께(로), -니께,-ㄴ께**	-으니까

39) 예문 (a)는 상황을, 예문 (b)는 인과를 의미하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a. 빨갱이덜이 요리 난리판 굿 꾸미는지도 몰르**믄서** 말이여.<6:175>
면회감**스로** 하도 가지갈 것이 옳어서 개떡얼 맨들기는 혔는디,<3:145>
다 암**스롱**도 저 우뭉 떠는 것 잠 보소웨.<3:113>
b. 재작년에 그리 지독시럽게 난리 치룸**시로** 에진간헌 사람덜언 다 죽고<4:57>

	-간디	-관데
	-니라고	-느라고
양보	**-드락도**	-ㄹ지라도
	-제만, -지만서도	-지만
상황	**-ㄴ디**	-ㄴ데
	-등마	-더니
목적	**-(으)로, -ㄹ라고**	-(으)러, (으)려고
유사	**-디끼, -대끼**	-듯이
도급	**-게끄름**	-도록

(55)a. 냅둬, 그 짓도 한철인디 시집**가면** 허라도 안헐 짓잉께.<3:258>
싸게만 **준담사** 못 살 것도 옳는디.<1:297>
b. 남으 땅만 파묵고 살자**니께** 황천이 눈앞이제.<1:296>
초지댁이 애가 볶이다**봉께** 맘이 헐크러지고 설크러져<6:24>
요만 혀서 숨통이 티였**응게** 다행이제,<3:112>
와따, 강동기가 홍길동이**간디** 하늘로 솟고 땅으로 꺼지고 혀라.<4:296>
니는 이름땜 허**니라고** 그리 드세게 사는갑다.<1:33>
c. 아프**드락도** 쪼깨 참으씨요.<2:163>
옳는 살림에 내놓는 것 옳기로 약조넌 **혔지만서도,**<3:206>
쌩보리밥에 찬도 옳**제만** 한술 떠야제라.<7:110>
d. 나도 인자 나잇살이나 묵었**는디** 은제꺼지 느그 발 밑에 깔레서 살 것 겉냐! <8:88>
꼬랑댕이가 질먼 밟힌다**등마**, 지미럴……<5:56>
e. 고건 풀**라고** 발싸심허먼 헐수록 헝클어진 실꾸리맨치로 얽히고 설키다가<1:32>
f. 나가 허는 말얼 벌로 듣지 말고 중놈 염불 외**디끼**,<8:101>
널도 많이 굴러야 높이 솟기**대끼**<5:245>
g. 또로록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끄름** 달달 외와뿌씨요, 잉.<8:101>

위 예문 가운데 (55a)는 조건, (55b)는 인과, (55c)는 양보, (55d)는 상황, (55e)는 목적, (55f)는 유사, (55g)는 도급을 나타낸다. 조건을 나타내는 '-으면'은 <태백산맥>에서는 단모음화된 '-으먼'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또 표준어의 '-으면야'에 대응하는 '-음사'가 확인되고 있다. 이 형태는 '-으면사> -으먼사> -음사'의 과정을 거쳐 생겨난 것인데, '-음사'의 경우 조사 '-사'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표준어 '-으면야'와 차이를 보인다.

예문 (55b)는 표준어에서 '-으니'의 후대형인 '-으니까'의 변이형이 보인다. '-으

니까'는 '-으니'에 '까'가 결합되어 생겨난 것인데, 여기서는 '까'가 '께'로 실현되고 있다. 이 '-으니께'는 /ㅣ/가 탈락되어 '-응께'로 혹은 예사소리 '-응게'로 실현되기도 한다. 한편 표준어의 '-관데'에 대응하는 '-간디'는 중세어 '-관ᄃᆡ'에서 왔다. 중세어 '-관ᄃᆡ'는 언제나 물음말과 함께 쓰이는 제약을 가졌다.(허웅 1975: 546)[40] 또한, '-느라고'는 '-니라고'로 나타나고 있다. 예문 (55c)는 표준어의 '-ㄹ지라도'와 '-지만'이 각각 '-드락도'와 '-지만서도(-제만)'로 실현되고 있다. 예문 (55d)의 상황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는디'와 '-등마'는 각각 표준어 '-는데'와 '-더니'에 대응한다. 예문 (55e)의 '-을라고'는 '-으려고> -으랴고> -을라고'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이기갑 2003: 426)[41]. 예문 (55f)의 '-디끼'와 '-대끼'는 표준어 '-듯이'와 대응하는 형태이다. <태백산맥>에는 '-듯이'와 형태를 약간 달리한 '-드끼'[42]형은 발견되지 않고 모음이 변화된 '-디끼'나 '대끼'형만이 실현되어 흥미롭다. 예문 (55g)는 표준어의 '-도록'이 '-게끄름'으로 실현되고 있다.

(3)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란 본용언에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어말어미를 가리킨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표 16> 태백산맥의 보조적 연결어미 (위평량 2004a:164)

태 백 산 맥	표 준 어
-아, **-야**	-아

40) 중세어에서는 '-관ᄃᆡ'가 항상 물음말과 함께 쓰여야 했지만 현대 여러 방언에서는 이러한 제약은 필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대신 '-관데'에 의해 연결된 접속문의 후행절이 물음법의 서법을 가져야 하는 제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전남 방언에서는 후행절이 서술문이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이기갑 2003: 397).
예) 누가 지보담 못한 사람 있간디, 지 한자 잘난 치 허고 있어. (=누가 저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자기 혼자 잘난 체 하고 있어.)

41) 김주원(1990)에서는 '-으려> -으랴'를 '-져>-쟈'나 '-으녀>-으냐' 또는 '-과뎌>-과댜' 등과 같은 양성모음으로의 변화의 한 가지로 보았다. 다만 '-져>-쟈'를 비롯한 종결어미의 양성모음화가 16세기부터 시작된 것에 비한다면, '-으려>-으랴'의 변화는 아무리 빨라도 18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다고 한다.

42) '-듯이'를 고려하면 '-드끼'는 '-*듯기'에서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이기갑 2003: 440).

-덜, -지	-지
-토, **-지도**	-지도
-허니, -허게	-하게

(56)a. 니 것도 내 것도 아닌 논에 그눔에 농새 자알 되**야** 묵겄소.<1:154>

b. 사람 잡을 소리 허**덜** 마씨요.<1:183>

c. 내가 체면 못 채리는 것이야 암시랑**토** 않는디,<9:273>

그 영감탱이헌테 날 완력으로 넘길란**지도** 몰르는디,<1:93>

d. 도래등 무당집에 핑**허니** 댕겨올랑께 니 동상허고 잘 놀아야 써.<2:52>

예문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적 연결어미 '-아, -지, -지도, -하게'는 각각 '-야, -덜, -토(-지도), 허니'로 실현되고 있다.

1.2.3 선어말어미

선어말 어미란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로써, '-았-', '-는-', '-더-', '-겠-' 따위와 같이 시상(時相)에 관한 것과 '-시-', '-옵-' 따위와 같이 높임법에 관한 것과 이 있다. 다음은 <태백산맥>에 반영된 선어말 어미의 예이다.

<표 17> 태백산맥의 선어말어미(위평량 2004a:169)

태 백 산 맥	표 준 어	태 백 산 맥	표 준 어
-겄-	-겠-	-시-, **-씨-**	-시-
-디-, -드-	-더-	-셨-, **싰**	-시었-
-았-, **-얐-(옜)**	-았-		

(57)a. 참말로, 삥아리새끼덜도 묵고 살**것**다고 저리 난리판굿인디……<9:9>

b. 고것이 혁명동지의 의리라고 대장님이 갤칩**디**여?<2:169>

참말로 간이 콩알만해지는 무선 귀경거리**드**만요.<1:61>

c. 그려서 결과가 워찌 되**얐**소.<8:86>

나 땀 다 딜**옜**네. 얼렁 씻소.<5:225>

d. 숨킨 디 말헐랑께 살려줏**씨**요, 살레만 줏**씨**요.<1:47>

e. 시상 뜰라니께 그리 맴얼 쓰**싰**는지,<5:71>

예문 (57a)는 추정을 표현하는 '-겄-'으로 표준어의 '-겠-'에 대응한다. 이기갑 외(1998d:118)은 호남방언의 '-겄-'에는 말할이의 추정이나 주어의 가능성을 뜻하는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했으나,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는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이 발견된다. 예문 (57b)는 회상의 선어말어미 '-드-'로써, 표준어의 '-더-'에 대응하며 그 쓰임 또한 동일하다. 다만 전남 방언에서는 수사적 물음을 뜻하는 '-을라디/을랍디여/을라든가/…?'나 '-드라고'의 '-드-'는 회상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 방언의 한 특징을 이룬다. 예문 (57c)는 과거시제 선어말 어미 '-얐-, -엤-'로써, 표준어의 '-었-, -았-'에 대응하는 형태이다. 예문 (57d)와 (57e)의 높임의 선어말 어미 '-씨-'와 '-싯-'은 각각 표준어 '-시-'와 '-시었-'에 대응하는 형태이다.

2. 어휘 형태

어휘(=단어)는 그 조어 방식에 따라 분류되는데, 어휘의 어기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되었으면 단일어(單一語),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되었으면 복합어(複合語)라고 한다.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분류되는데, 어기가 실질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合成語), 어기에 파생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는 파생어(派生語)라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분류방식에 기초해 각 품사별로 <태백산맥>에 반영된 전남방언의 단일어와 파생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2.1 자립명사

다음은 <태백산맥>에서 발견되고 있는 단일어로 된 명사들이다. 이들은 모두 단어 전체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58) 놉: 어르신, 이 땅은 몇 명만 **놉**을 사면 금세 농토화시킬 수 있는 땅 아닙니까.<1:141>
새살: **새살**까니라고 참새만 존 일 다 시켰다.<5:322>
갸가 워디 **새살**이나 많이 까는 가시내간디라.<6:43>

끌탕: 시방 정보과에서 조사럴 벌이고 있응께 메칠 안으로 **끌탕**이 빠질 것잉마.<9:26>
폴세 조 동무가 그 점을 **끌탕**잡을 거이다 생각혔구만.<9:292>
괴비: 지 것언 요쪽 **괴비**에 또 있구만이라.<10:39>
허방: 아이들은 반딧불을 쫓아 어둠 속을 뛰다가 **허방**을 딛기도 하고 <6:333>
아칙: **아칙**언 묵었는게라?<2:22>
인자 **아칙**바람이 쌀쌀헌디.(1:271)
낭구 : 동무덜, **낭구**넌 요것저것 개릴 것 읎이 닥치는 대로 해오씨요.(9:338)
소양 : 근디, 우리찌리 입방아 찧고 애태우먼 무신 **소양**이 있는가.(3:146)
말래 : 아, 멋덜 허고 섰냐! 싸게 떡시루 쩌그 **말래**다 안 내레놓고.(6:137)
갱신: 야아, 외숙모가 **갱신**얼 못허고 끙끙 앓아눴구만요.<7:320>
삭신: 그 정 띠기가 **삭신** 짤라내는 것만치 에롭다는<6:105>
파수: 올벼쌀은 추석을 앞질러 두 **파수** 전부터 장에 나오기 시작했다.<5:336>
상호: 야, 느그 둘이는 워째 똥 집어묵은 **상호**냐?(7:55)
주벅: 막보기로 허고 나대먼 **주벅** 뺏길 날이 온다는 것을<5:209>
물팍: 우리럴나넌 또 **물팍** 착 꿇고 엎디려 비는 것인지 알었제라.<4:98>
살강: 월녀는 **살강** 앞에 선 채로 저녁을 대충 먹어치웠다.(2:75)
퇴깽이: 어허, 그 꾀 한분 용왕 쇡인 **퇴깽이** 꾀다!(4:50)

위 예문 (58)의 뜻을 살펴보면, 놉(날일꾼), 새살(잔소리), 끌탕(속태우는 걱정), 괴비[43](호주머니), 허방(구덩이, 함정), 아칙(아침(밥)), 낭구(나무), 소양(소용), 말래(마루), 갱신(몸을 가까스로 움직이는 일), 삭신(피부, 살결, 몸), 파수(장날에서 장날까지의 사이), 상호(얼굴 모습), 주벅[44](주걱), 물팍(무릎), 살강(부엌의 찬광), 퇴깽이(토끼)이다.

다음은 <태백산맥>에서 명사파생접미사 '-질'이 덧붙어 파생어로 실현된 명사의 예이다.

(59) 홀태질: 꼬막이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그렇게 **홀태질** 당하고도 또 뻘을 헤치면 나오듯이 <5:265>
맥질: 머리가 닿은 토방에는 검붉은 피가 **맥질**이 되어 있었다.<1:281>

---

43) '개비'는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주머니가 개화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개화'란 말과 '주머니'가 복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이태영 2000: 151).
44) '주걱'을 '주벅'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을 '버큼'이라고 하는 것처럼, 'ㄱ'음과 'ㅂ'음이 교체되는 현상임(이태영 2000: 153).

송씨의 얼굴도 백남식의 얼굴 못지 않게 화가 **맥질**되어 있었다.<7:311>
졸갱이질: 늦게 왔다고 **졸갱이질** 당혀도 내사 몰릉 께.<5-9>
당글개질: 워째 목구녕이 간질간질허니 **당글개**질얼 허는디,<9:130>

위 예문 (59)의 뜻을 살펴보면, 홀태질(곡식을 훑어 떠는 일), 맥질(매흙질, 벽거죽에 매흙을 바르는 일), 졸갱이질(졸경, 모진 괴로움), 당글개질(고무래질, 그러모으거나 펴는 일)이다.

명사파생접미사 '-머리'는 의미의 첨가 없이 오직 비하의 뜻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준어의 '씨알머리'나 '인정머리' 등에서 확인된다. <태백산맥>에서 발견되는 아래 예문을 보자.

(60)a. 소갈머리: **소갈머리**가 쥐창아리만 해갖고 오해혔구만이라.<1:171>
버르장머리: 상것들 **버르장머리**읎이 맹근 것이 바로 춘향전일세그랴.<3:360>
싹수머리: **싹수머리**읎이 나대는 딴 후보 운동원덜부텀 처읎애고,<6:234>
성깔머리: **성깔머리**가 억센 여자일 것이었다.<2:218>
b. 끄트머리: 이 남도의 **끄트머리**까지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형편이었다.<6:337>
끝머리: 두 산은 반도땅이 시작되는 **첫머리**와 반도땅이 끝나는 **끝머리**에<8:10>

(60a)는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서, 성격, 심리 상태, 사람의 질병 등을 나타내고 비하의 말맛을 풍기지만, (60b)는 사물을 가리키고 정의적 효과 또한 두드러지지 않는다(이기갑 2005a: 165-166). 소갈머리(철딱서니), 버르장머리(버릇), 싹수머리(싹수), 성깔머리(성깔), 끄트머리/끝머리(끝),첫머리(처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머리'의 비하형 '대가리'도 접미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대가리'는 '머리'의 비하형이므로 접미사로 쓰이더라도 비하의 효과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특히 '-머리'보다 그 정도가 심한 것은 당연하다. 아래 (61)은 '-대가리'가 비하적 접미사로 쓰인 예들인데, 이들은 '-머리'로 대체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이기갑 2005a: 166).

(61) 중대가리: 저러다가 둘 다 **중대가리** 되야뿔 것인디 인자 말개야 쓰겄네.<9:169>
좆대가리: 요런 **좆대가리**가 지대로 여물지도 않은 새끼가<2:258>
빡빡대가리: 우리 겉은 **빡빡대가리**가 요런 요상시런 디 들랑이다가 잽히는 날에는<5:34>

웃대가리: **웃대가리**덜이야 권력 잡겄다고 못된 일 억지로 시킨다 허드락도<8:86>
재수대가리: 시방 머시라고 허요, **재수대가리** 읎이.<8:255>
맛대가리: 니미럴, **맛대가리**도 잔생이 읎는<8:279>

접미사 '-에기'는 주로 /ㄹ, ㅇ, ㅁ/ 등 공명음과 /ㅣ/모음 뒤에 나타난다.

(62) 찌끄레기: 그건 옛날 양반 **찌끄레기**들이 쓰기 좋아했던 말이오.<1:73>
뿌시레기: 일가친척 **뿌시레기**덜이 싹 다 똥구녕이 째지게 가난혀서<5:334>

예문 (62)는 어근에 접사 '-에기'가 결합한 형태로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이나 동물 또는 사물을 가리킨다. 찌끄레기(자잘구레한 것), 뿌시레기(잘게 부스러진 물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접미사 '-아지'는 주로 /ㄱ,ㅇ,ㄹ/을 끝소리로 갖는 어근 다음에 붙어 비하의 의미를 갖는다.

(63) 손모가지: 기엉코 찾아서 그눔에 **손모가지**럴 뚝뚝 뿐질러뿔 것잉께.<3:63>
나락모가지: 또록또록허게 생긴 **나락모가지**[45]고 **수시모가지** 골라잡어 시갖고<7:132>
속아지: 시상이 다 아는 못된 **속아지**에 맘 한분 좋게 묵자고 혔어도<6:113>
독아지: 갈치속젓에 버물러 큰 **독아지**로 잔뜩 혀서 묻어놨응께로<4:64>
꼬라지: 봇도랑 막고 설레발치는 아그덜 **꼬라지**로 봤을랑가?<6:13>
싸가지: 듣고봉께 그 젊은 놈이 영판 **싸가지** 읎네그려.<3:199>

접미사 '-아리'는 주로 /ㄱ,ㅇ,ㅁ,ㄹ/ 뒤에 오는데, <태백산맥>에 보이는 예로는 다음이 있다.

(64)a. 속창아리: 우리넌 요리도 **속창아리**도 읎는 것덜이요, 허고 굿 뵈자는 것이여?<5:336>
쥐창아리: 소갈머리가 **쥐창아리**만 해갖고 오해혔구만이라.<1:171>
배창아리: 그냥 잊어뿔기로는 **배창아리**도 읎는 것 겉고,<7:224>
몸뚱어리: 똑같은 **몸뚱어리**, 똑같은 목구멍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3:25>
b. 꽝아리: 찬찬히 들어봉께 말에 **꽝아리**가 든 것이 아조 속이 씨언허요.<9:209>

45) '나락'은 '벼'를 의미하는 방언.

전남방언에서는 (64a)의 '몸뚱어리'처럼 '-아리'는 앞말에 따라 '-어리'로도 실현된다.

접미사 '-악지'는 /ㄱ,ㄹ/과 모음 다음에 온다.

(65) 개구락지: 바람 묵은 **깨구락지**맹키로 헛방구 뀌고 자빠졌네,<2:187>

접미사 '-앙구'는 모음 /ㅣ/나 반모음/ㅣ/ 또는 /ㅅ/ 등의 일부 자음 뒤에 결합된다. 접미사 '-앙구'는 '-앙지'와 교체되어 쓰일 수도 있다.

(66)a. 뿌랑구: 고런 종자덜언 **뿌랑구**부텀 쏙쏙 뽑아뿌러야 허요.<5:32>
지푸랑구: 연기야 **지푸랑구** 새로 솔솔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3:225>
b. 미꾸랑지: 깨끔헌 둠벙물 꾸정키리는 느자구없는 **미꾸랑지**새끼덜이라서<4:227>

접미사 '-댕이'는 사람, 동물, 사물을 가리키는데, '-데기'와 교체되어 쓰일 수도 있다.

(67)a. 옆댕이: 쩌짝 군사무소 **옆댕이**로 가면 명색만 여관인 것이 있기넌 있제라.<7:235>
껌댕이: **껌댕이** 도야지도 태몽으로는 치는디,<6:78>
꽁댕이: 그리 **꽁댕이** 실실 숨킬라고 허는 것 봉께<6:113>
주먹댕이: 저것이 남자도 아니고 **주먹댕이**만헌 여자라논께<3:47>
모강댕이: 권세잡고 **모강댕이** 잣지밧지해갖고 뻗대고 사는 꼴<4:227>
꼬랑댕이: 겁묵은 개새끼 **꼬랑댕이** 가랭이 새로 끼박음서 옆걸음치대끼<9:131>
워째 **말꼬랑댕이**가 요상시럽네?<2:129>
다리몽댕이: 니 **다리몽댕이** 뿐질러지기 전에 싸게 가그라.<4:195>
b. 구석뎅이: 정 그렇다면 고것이나 **밭구석뎅이**로 치워라.<7:320>
몬뎅이: **몬뎅이**럴 올라챌 심이 모지랑께 심 모타 올라챌라고<4:242>

접미사 '-태기,-탱이, -탕구'는 사람과 사물을 가리키는 데 쓰이며,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도 있다. 이들은 비하의 말맛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늙은이나 어린 아이 또는 바보스런 사람을 비하하는 경우에 쓰인다.

(68)a. 중테기: 깔끄막 **중테기** 쪼간 우에 쩌그 참나무 뵈제라?<9:53>
b. 영감탱이: 그 **영감탱이** 땀세 암시랑토 않든 우리 작인눔덜꺼정 들썩이고<5:333>

c. 영감탕구: 그 **영감탕구**가 노망들게 늙어빠진디다가,<7:102>

접미사 '-배기. -뱅이'는 명사, 용언의 어근 등에 붙어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갖는 사람을 나타낸다.

(69)a. 양코배기: 고런 **양코배기**덜이 우리럴 해방시켜줬다고?<3:150>
생짜배기: 우리 땀세 **생짜배기** 고상얼 허는디, 영판 미안시럽소이.<5:317>
진짜배기: 머리 써서 허는 **진짜배기** 쌈잉께<8:101>
b. 거렁뱅이: 우리가 **거렁뱅이** 문딩이떼가 아닌께 소란은 아니고라,<3:125>

예문 (69b)의 '-뱅이'는 용언의 명사형이나 접미사 '-엄'이나 '-엉' 뒤에 붙는 경우가 많다.

2.2 의존명사

의존 명사란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가리킨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표 18> 태백산맥의 의존명사 (위평량 2004a:171)

태 백 산 맥	표 준 어	태 백 산 맥	표 준 어
디	곳	**분**	번
땀시, 땀세	때문에	**티**	테
눔, 놈	놈	**칙끼**	척
티	터		

(70)a. 숨킨 **디** 말헐랑께 살려줏씨요,<1:47>
b. 나가 머 **땀시** 고런 눔 보증얼 서라<2:113>
c. 그 오살헐 **눔**에 좌익에 미쳐갖고 쭈룰허니 염상진이 뒤따라 입산얼 해부렀당께요.<4:230>
d. 신령님, 존 일 헌다고 이년얼 한 **분**만 살펴주십소사.<2:36>
우리 꼬라지가 요리 각다분허고 앉었으면 누구 **땀세**요.<3:149>
e. 야아. 얼렁 맹글 **팅**께 방에 들어가 기시씨요.<2:78>
f. 짜석, 드럽게 인정 있는 **칙끼** 허고 자빠졌네<8:256>

예문 (70)에서 전남방언의 의존명사가 실현된 양상을 살펴보면, 표준어의 '데, 테니, 번, 때문에, 놈, 척'은 각각 '디, 팅, 분, 땀시/땀세, 눔, 칙끼'의 모습이다. '땀시/땀세'와 '칙끼'를 제외하고는 표준어와 음운론적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띤다.

2.3 대명사

대명사는 크게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의 둘로 나뉜다. 인칭대명사는 다시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 등으로 나뉘고, 지시대명사는 사물대명사와 처소대명사로 나뉜다. 그러면 <태백산맥>에는 대명사가 어떻게 실현됐는지 살펴보자.

<표 19> 태백산맥의 대명사 (위평량 2004a:170)

태 백 산 맥		표 준 어	태 백 산 맥		표 준 어
1인칭	**나(가)**	내(가)	3인칭 (인물)	**야**	이애
				쟈	저애
	지	저		**갸**	그애
				즈그	저희
2인칭	**니**	네	3인칭 (장소)	**여그**	여기
	느그, 느네	너(의)		**거그**	거기
				쩌그	저기
	느그	너희		**워디**	어디

(71)a. 애만 타제 **나가** 워쩌겄냐.<4:110>
나가 머 땀시 고런 눔 보증얼 서라<2:113>
성님, **나** 말언 고런 말이 아니랑께요.<4:293>
b. **지야** 묵은 것이나 매일반잉께요.<6:136>
그 사람이 죽은 것이야 **지** 좋아서 허든 일 끝막음이 그렇다고 치고,<6:115>

1인칭 대명사는 표준어의 경우 주격에서 '내', 그밖의 환경에서는 '나'로 변동하는데, 방언에 따라서는 이러한 변동 대신 어느 한 변이형으로 형태가 통일되는 수가 있다. 즉 '내'로 통일되거나 아니면 '나'로 통일되는 두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는 (71a)와 같이 '나'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는데, 주격조사 앞의 '내'가 '나'로 쓰임으로써 '나'로의 평준화(levelling)가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전남의 동부 지역이나 경남 지역어 일부(통영·거제)에서 확인된다고 한다(이기갑 2003: 651).

재귀대명사로 쓰이는 '저'는 <태백산맥>에서 예문 (71b)와 같이 '지'[46]로 실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72)a. 손끝 엽렵허기가 요리 매시라운 **니**는 천상 타고난 여잔디. <1:98>
요런 시건방진 새끼, 친일파가 **느네** 할애비를 죽였냐,<6:247>
b. 한시상 살다보면 **느그** 냄편 시상도 올 때가 안 있겄냐.<3:331>

2인칭 대명사는 주격 조사 앞에서 '네', 그밖의 환경에서 '너'로 쓰이는 것이 표준어적 어법이지만, 방언에 따라 '너'로 통일되는 수가 있다. 즉 주격 조사 앞의 변동형 '네' 대신 '너'를 씀으로써 형태적 통일을 이루는데, 이러한 형태의 평준화는 1인칭 대명사에서 '나'로 통일되는 것과 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한편 주격 조사 앞에서 '네'나 예문 (72a)의 '니'[47]가 쓰이는 것은 대부분의 방언에서 공통적이라고 한다(이기갑 2003: 653). 또, '너의'라는 뜻으로 '느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2인칭 대명사의 복수 '너희'는 <태백산맥>에서 예문 (72b)와 같이 '느그'[48]로 실현되고 있다.

(73)a. **야**들아, 저 늙은 년은 목심보다 돈이 더 중헌 모냥잉께<1:46>
b. **쟈**가, **쟈**가, 똑 공산당 겉은 말만 허고 앉었네.<5:114>
c. 그 영감은 **걔**들헌테 맞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가 고꾸라짐스로<2:25>
d. 아덜이 **즈그**덜 방에 있는디, 왜 그러는가? <1:200>

---

46) 방언 '지'는 재귀대명사 '자기'나 '당신'보다는 낮은 말맛을 준다.
47) 경남 지역어의 경우, '니'가 주류를 이룬다고 함(이기갑 2003: 653).
48) 전남 방언의 '느그'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일부 친족 명사('아부지, 엄니' 등) 앞에서 '늑'으로 변동한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명사라 할지라도 아래의 예와 같이 모두 '늑'으로 변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늑'으로의 변동은 어휘적으로 매우 제약된 환경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이기갑 2003: 654).
예) *늑 아들, *늑 아랫집, *늑 할아부지

3인칭 대명사 ‘이 아이’, ‘저 아이’, ‘그 아이’를 뜻하는 ‘얘, 쟤, 걔’는 <태백산맥>에 ‘ㅣ’모음이 탈락 된 형태인 예문 (73a, b, c)와 같이 각각 ‘야, 쟈, 갸’로 실현되고 있다.

3인칭 대명사의 복수 ‘저희’는 <태백산맥>에서 예문 (73d)와 같이 ‘즈그’[49]로 실현되고 있다.

(74)a. 대장님, **여그** 오시능마요<2:87>
b. 요번에 서울 가서 봉께 **거그** 기운은 워쩌등가?<3:357>
c. 이 머이매야! 싸게 일나 싸게, **쩌그** 느그 아부지 온다, 아부지!<5:319>
d. **워디** 가셨읍디여?<2:83>

3인칭 대명사로 장소를 지시하고 있는 ‘여기, 거기, 저기’는 <태백산맥>에 예문 (74a, b, c)와 같이 여그, 거그, 쩌그’로 나타나고 있다. ‘쩌그’는 두음을 된소리로 발음 하여 ‘저그’보다 멀리있는 듯한 어감을 준다.

3인칭 대명사로 부정칭의 장소를 지시하고 있는 ‘어디’는 <태백산맥>에서 ‘워디’로 실현된다. (74d)의 ‘워디’처럼 모음의 원순성이 가미되는 것은 전남 지역어가 의문 대명사나 의문 부사의 경우 특히 원순화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남방언의 ‘어떻게’가 ‘워치케’, ‘어머’가 ‘워메’, ‘어찌’가 ‘워째’ 등으로 실현되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2.4 동사

문학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동작을 묘사해야 하기 때문에 동사가 잘 표현되어 있다. 이때 일반적인 동사도 있지만 분석하기 어려운 동사들도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방언에서는 통사론적 복합어나 구와 같은 성격의 복합어가 많다.

다음은 <태백산맥>에 반영된 단일어로 된 동사이다. 이 단어들은 어간과 어미라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고 있지만 그 어기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

49) ‘즈그’도 ‘느그’와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일부 친족명사(‘아부지, 엄니’등) 앞에서 ‘즉’으로 변동한다. ‘즈그’가 ‘즉’으로 변동하는 환경도 ‘느그’가 ‘늑’으로 변동하는 환경과 동일하다(이기갑 2003: 655).

(75) 삐대다: 그리 **삐대**쌓지 말고 퍼뜩퍼뜩 써뿌씨요.<9:12>
쉬다: 나가 나이 **쉰디다가** 키할라 요리 쪼깐허니 크다가 말어뿌렀이니<10:23>
뛰다: 한분 **뛰겄다** 고것이여!<5:267>
왈기다: 보도연맹에 가입허라고 청년단원덜이 샘골댁얼 **왈기는** 것을 봤는디,<6:207>
종그다: 삭신을 못 쓰게 맹글날을 폴세부텀 **종그고** 있단 것을 지눔이 알아야 쓸 것이여.<1:176>
째다: 양쪽서 협공당헌 그눔덜이 못 견디고 **쨀** 디넌 읍내 쪽 뿐이다 그것이요.<8:236>
쨈미다[50]: 이, 요것으로는 부상당헌 디 **쨈미는** 디 쓰고,<9:291>
모트다: 몸이 을매나 휘질 것인디, 그간에 심이나 **모트고** 있으소.<9:141>
달게다 :나가 살살 **달게먼** 말 듣겄제 워째.<6:173>
자빠지다: 저눔이 시방 먼 넋 나간 소리 허고 **자빠졌는** 기여.<5:117>

위 예문 (75)의 뜻을 살펴보면, 삐대다(느릿느릿 움직이다), 쉬다(나이를 먹다), 뛰다(맞붙다), 왈기다(난폭하게 다루다, 협박하다), 종그다(벼르다), 째다(도망가다), 쨈미다(잡아당겨 매다, 묶다), 모트다(모으다), 달게다(달래다)이다.

다음은 동사파생 접미사를 사용한 동사의 예이다.

(76) 땅띔하다: 서울이라도 **땅띔허기가** 에로운디 평양이란께 더 땅띔이 안 되는만이라.<7:98>
잣지받지하다: 북조선 동무덜이 을매나 **잣지받지허니** 우리럴 눈아래로 깔아보고,<7:195>
발싸심하다: 고건 풀라고 **발싸심허면** 헐수록 헝클어진 실꾸리맨치로 얽히고 설키다가<1:32>
명념하다: 야아, **명념허겄구만이라.**<9:22>
볼충하다: 물이 실렸든 동안에 못헌 일 **볼충허라고** 뒤에서는 잡지제,<4:307>

(77) 자울기리다: 성님허고는 말이 안 통헌께 그냥 **자울기리기나** 허씨요.<8:297>

예문 (76)은 동사 파생접미사 '-허-'가 사용되고 있고, (77)은 '-기리(거리)-'가 사용되어 있다. 이들의 의미를 살피면, 땅띔하다(알아내다, 어림짐작하다), 잣지밧지하다(잦바듬하다), 발싸심하다(발을 재게 놀려 돌아다니다), 명념하다(명심하다), 볼충하다(벌충하다), 자울기리다(졸다)이다.

50) 원래는 '잡아매다'인데, 이 말이 '잡매다'가 되고 된소리가 되면서 '짭매다'가 되었는데, 발음상 '쨈매다'가 되고, 고모음화가 실현되어 '쨈미다'가 되었다(이태영 2000: 170).

2.5 형용사

형용사는 문학작품에서 자연과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형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특징이 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나타나는 전남방언의 형용사 중에서 단일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78) 보트다: 진작에 서장헌테도 입에 춤이 **보트게** 헌 말인디,<7:154>
소리럴 질러바야 숨**보트는** 소리가 발악에 떨어지는 골골허는 소리제.<4:242>
헤식다: 갑자기 떠오른 그 생각이 어이없어 **헤식은** 웃음을 흘렸다.<5:22>
가찹다: 질이야 험해도 율어가 **가찹제라.**<4:87>
여그 **가차이** 오고 허먼 꼭 찾아오씨요이.<4:266>
모지래다: 소금이 **모지래먼** 요 두껀 햇발에 뽀짝뽀짝 말레라.<5:270>
찡기다: 우리만 새중간에 **찡게서** 홀태질 당허니라고 피 보틀 일이여.<10:72>
달브다: 가실볕도 하로가 **달브고** 이틀이 달브제라.<6:10>
매롭다: 찬물 묵으먼 오줌만 **매롭고** 더 배고픈디.<2:205>
에롭다: 저 씨가 을매나 **에롭고** 에롭게 받은 것인지야 오빠도 아시제라<6:39>
몰키다: 사람덜이 저리 **몰키는** 것도 인공시상에 바래는 것이 많기 땀세, <7:61>
쌨다: 딴말 **쌔고 쌨는디** 고런 말 그만 묻소.<7:12>

위 예문(78)의 뜻을 살펴보자면, 보트다(마르다), 헤식다(사람됨이 맺고 끊는 데 없이 싱겁다), 가찹다(가깝다), 모지래다(모자르다), 찡기다(끼이다), 달브다(다르다), 매롭다(마렵다), 에롭다(어렵다), 몰키다(몰리다), 쌨다[51](많다)이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반영된 형용사 파생접미사 '-시럽-'은 표준어의 '-스럽-'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표준어에 나타나는 여러 낱말들, 예를 들어 '어른스럽다'는 전남방언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그런데 전남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훨씬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 표준어에서 불가능한 여러 낱말들이 이 접사를 사용하고 있다.

51) '쌨다'는 '쌓다'와 관련이 있는 말로, 많다는 뜻이다. '쌓이고 쌓인' 곡식을 보면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즉, '쌨다'는 '쌓이어있다'가 줄어서 된 말이다. '쌓이고 쌓이어 있다'가 줄면 '쌨고 쌨다, 쌔고 쌨다'가 된다(이태영 2000: 176).

(79) 몰악시럽다 : 이 **몰악스럽고** 혹독한 겨울이 끝날 때까지.<6:159>
무작시럽다 : 늙은 몸에 그리 **무작시럽게** 맞었이니.<2:91>
근천시럽다 : 그눔에 **근천시런** 쌍판때기 뵈기도 싫은께!<5:337>
꾸척시럽다 : 이분이 **꾸척시럽게** 성으로 양반 상놈을 가르자는 건가 뭔가,<9:36>
모지락시럽다 : 값을 모지락스럽게 후려때렸음은 물론이고,<6:34>
징상시럽다 : 워따메 참말로 **징상시럽게** 찔기고 찔기요이, 천 동무!<9:11>
우새시럽다 : **우새시럽다,** 헐 일 다 혔으며 싸게 가자.<9:276>
으지렁시럽다 : 아이고메, 속도 **으지렁시럽기도** 허시.<7:313>
시장스럽다 : 그는 읍장은 한심스럽고, 군수는 **시장스럽고,** 도지사는 우습고,<5:36>
불퉁스럽다 : 마삼수가 굴뚝처럼 코로 연기를 내뿜으며 **불퉁스럽게** 말했다.<6:207>

위 예문 (79)의 뜻을 살펴보면 몰악시럽다(인정없다), 무작시럽다(무지하다, 가차없다, 대단하다), 근천시럽다(잘고 옹색하다), 꾸척시럽다(새삼스럽다), 모지락시럽다(모질다), 징상시럽다(징그럽다), 우새시럽다(우스개스럽다, 창피하다), 으지렁시럽다(속이 차고 융숭깊다), 시장스럽다(한심스럽다), 불퉁스럽다 (퉁명스럽다)이다.

형용사 파생접미사로 '-하-'가 있는데 이는 형용사와 동사를 모두 파생시킬 수 있는 매우 생산력이 강한 접미사이다. 다음은 '-하-'에 의한 파생이 일어난 예이다.

(80) 각다분하다 : 나가 요리 **각다분헌디** 자네 속이야 더 말헐 것 읎제.<5:73>
뜨광하다 : 그리 **뜨광허게** 말고 씨원허게 답해뿌씨요.<9:130>
탁하다 : 고눔 참, 영축읎이 즈그 아부지 **탁했다.** <7:320>
푹하다 : 봄 하늘은 **잠푹허게** 따땃헌 기색이 도는 것이 서로 달븐 차이 아니라고?<9:18>
푼더분하다 : 낙낙허게 지키고, **푼더분허게** 지키고 혀얄 것 아니드라고?<9:293>
히놀놀하다 : 잘 묵지도 못혀 **히놀놀헌** 꼬라지덜 해갖고<10:258>
징허다: 보리풀때죽도 목 낆이는 철에 하늘만 저리 **징허게** 시퍼렇고,<9:18>
솔찬하다: **솔찬허시**<2:48>
맨맛하다: 냄편 읎어진 신세에 가면 워디로 가겄소. **맨맛헌** 것이 친정이제라.<10:78>
늘핀하다 : 이 깔끄막, 저 깔끄막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헌 시체가 **늘핀혔응께.**<9:331>
생뚱하다: 머시여? 봄얼 따묵어? 거 무신 **생뚱헌** 소리여?<8:297>

위 예문 (80)의 뜻을 살펴보면, 각다분하다(일을 해나가기가 몹시 힘들고 고되다), 뜨광하다(마땅하게 여기지 않다, 반응이 신통치 않다), 탁하다(닮다), 푹하다(푸근하다), 푼더분하다(여유있고 넉넉하다), 히놀놀하다(핼쓱하다), 징하다(징그럽다), 솔찬하다(수월찮다, 대단하다), 맨맛하다[52](만만하다), 늘핀하다(늘펀하다, 여기저기 널려 있는 모양), 생뚱하다(엉뚱하다)이다.

다음은 형용사 파생접미사 '-읎-'과 '-있-'이 사용된 예이다.

(81)a. 미꼬미 없다: 요런 **미꼬미 읎는** 시상 살아가기도 인자 징글징글허요.<4:295>
느자구읎다: 저 쥐방울만한 것꺼지 애비 탁해서 **느자구읎기넌.**<6:182>
보초읎다: 고런 느자구읎고 **보초읎는** 짓거리가 이 시상에 또 워디 있겄소.<9:186>
뚱금읎다: 짜가 시방 무신 **뚱금읎는** 소리 허고 앉었다냐?<4:293>
영축읎다: 애비가 무식허다만 요것만은 **영축읎는** 말잉께<1:261>
쓰잘디읎다: 나가 비싼 밥묵고 **쓰잘디읎는** 소리 헐 성부르냐.<4:226>
b. 늘품있다: **늘품있이** 지키고, 낙낙허게 지키고, 푼더분허게 지키고<9:293>

위 예문 (81)의 뜻을 살펴보면, 미꼬미 없다(가망 없다, 절망스럽다), 느자구읎다(버릇없다, 철없고 분수를 모르다), 보초읎다(버릇없이, 배운 것 없이 늘품 없음), 뚱금읎다(느닷없다), 영축읎다(영락없다), 쓰잘디읎다(쓸데없다), 늘품있다(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이다.

다음은 형용사 파생접미사 '-지-'가 사용된 예이다.

(82) 찰방지다 : 진작에 전라도말얼 그리 **찰방지게** 혔드라면 더 맘에 들었을 것 아니겄소.<4:14>
하면, 자네보담 이쁘고 **찰방진** 여자가 쩌짝에 있데.<4:263>
강단지다 : 맘 **강단지게** 묵으씨요.<8:332>
오지다 : 재미가 **오진** 싸까쓰도 똑겉은 거 두 번씩 보면 질리는 법인디,<1:66>
꼬드라지다 : 목타 **꼬드라져** 가는 사람헌테 물바가치 내리는 고마움이제 멋이겄소.<10:262>
나사지다: 결혼허면 시나브로 **나사지겄제잉.**<8:279>
걸판지다: 모내기가 **걸판진** 한바탕 잔치처럼 지나가<5:199>

52) 표준어인 '만만하다'는 '무르고 보드랍다. 손쉽게 다루거나 대할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전남방언에서의 '맨맛허다'는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시킬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예문 (82)의 뜻을 살펴보면, 찰방지다(찰떡 맛처럼 쫄깃쫄깃하고 탄력적이고 재치 있는 말이나 행위), 강단지다(강단 있다), 오지다(올지다), 꼬드라지다(고드러지다, 물기가 말라서 뻣뻣하게 굳어지다), 나사지다(나아지다), 걸판지다(걸다)이다.

표준어 '달짝지근하다'는 어근 '달짝-'에 접미사 '-지근-'이 첨가된 것인데, 이러한 접사는 <태백산맥>에서도 발견되며, 표준어에서 불가능한 여러 예가 다음과 같이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83)a. 나르지근하다: 전신이 **나르지근하게** 맥이 풀려나갔다.<8:312>
늘이지근하다: 개덜이 밥처묵고 **늘이지근허게** 자빠져 있을 적에 들이처뿝시다.<8:306>
묵지근하다: 귓속이 어수선하고, 머리가 **묵지근했다.**<8:80>
후덥지근하다: 날씨처럼 김범우의 마음도 나날이 **후덥지근할** 뿐이었다.<6:269>
b. 껄쩍지근하다: 워째, 맘이 **껄쩍지근허요?**<9:318>
들척지근하다: **들척지근한** 웃음에다 묻혀내는 비리치근한 말들에 치를 떨었다.<9:123>

예문 (83)의 뜻을 살펴보면, 껄쩍지근하다(꺼림칙하다), 들척지근하다(약간 들큼한 맛이 있다), 나르지근하다(나른하다), 늘이지근하다(나른하다보다 무거운 느낌), 묵지근하다(무거운 느낌이다), 후덥지근하다(열기가 차서 조금 답답할 정도로 더운 느낌이 있음)이다. '-지근-'이 결합된 파생 형용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83a)와 같이 어근에 '-지근-'만 결합되는 경우와 '-적지근-'형으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이때 '적'은 낱말에 따라 (83b)와 같이 '쩍'이나 '척'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음은 형용사 파생접미사 '-잖-'이 사용된 예이다.

(84) 몰뚝잖다: 걷기가 **몰뚝잖은디도** 헐 말이 있어서 역부러 왔소.<6:112>
그댁잖다: 안전허겄소?/ **그댁잖겄소.**<9:151>

위 예문 (84)의 뜻을 살펴보면, 몰뚝잖다(못마땅하다), 그댁잖다(대수롭지 않다)이다.

그 외에도 아즘찬이다(분에 넘치게 감사하다), 오갈들다(두려워 기운을 펴지 못하다), 매시랍다(솜씨같은 것이 깔끔하고 숙련되다), 시퍼보다(무시하다) 등이 있다.

2.6 보조용언

보조용언은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가 있는데, 표준어의 경우 '가지고 싶다'의 '싶다'라든지 '잊어 달라'의 '달라' 따위를 말한다. <태백산맥>에 반영된 보조용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태백산맥의 보조용언 (위평량 2004a:172)

의 미	태 백 산 맥	표 준 어
완료	**뿌리다, 뿐지다 ,부리다**	버리다
바람	**잡다,** 싶다	싶다
추정	**갑다, 겉다**	같다
봉사	**도라**	달라

(85)a. 국밥 묵은 지 을매나 되얐다고 폴세 배꺼져 **뿌렀능가.**<9:258>
둘이나 끌려나갔는디, 한나가 폴세 죽어 **뿐졌소.**<9:208>
그란디 결국 쬦게가**불고** 식구덜만 남았는디,<3:20>
b. 그런 존 일이면 지 겉은 년도 허고 **잡다**는 맘이 생기드만요.<4:210>
c. 비가 올랑**갑다.**<7:128>
죽은 것 **겉다.**<10:160>
d. 아이고메 다리야, 나 잠 살레 **도라**, 하며 달음박칠치기 시작했다.<5:231>
여자덜이 일어남스로 심얼 보태 **도라**는디 남자 체면에 어찌 마다겄소.<6:25>

예문 (85a)의 '뿌-'는 표준어의 <어떤 행위를 해 치움> 또는 <행위의 완료>등을 나타내는 '버리-'와 대응한다.[53] 이 '버리-'는 방언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전남방언에서는 '부리-'의 형태에서 모음 /ㅣ/가 탈락하여 '불-'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문 (85b)의 '잡다'는 표준어의 <바람>과 <추정>을 나타내는 '싶다'에 대응하는 보조용언으로 보기 쉬우나 좀 차이가 있다. 전남방언에서는 바람과 추정의 경우, 각각의 형태가 달리 나타난다. 우선 추정의 경우 '싶-'이 쓰이고, 바람의 경우 '잖

53) 보조용언 '버리-'는 동사 '버리-(捨)'에서 문법화된 것으로서,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사용되므로 본용언은 언제나 동사이어야 하는 통사적 제약이 있다.

-’ 또는 ‘잡-’이 쓰인다.

예문 (85c)의 ‘갑다’는 표준어의 추정과 의도를 뜻하는 ‘보다’에서 왔다. ‘-은가 보-’가 전남방언에서는 ‘-은가 비-’, ‘-는가 비-’로 변이되어 /ㅣ/모음이 탈락되고 각각 ‘-은갑-’와 ‘-는갑-’의 형식이 되었다.

그리고, 예문 (85d)의 ‘도라’는 표준어의 ‘달라’에 대응한다.

2.7 관형사

관형사 ‘먼 일, 먼 소리, 먼 음식’의 ‘먼’은 표준어로 ‘무슨’으로 써야 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86)a. 난리는 **먼** 놈의 난리가 난다요?<2:17>
b. **무신** 쓰잘디 있는 일만 허고 살아집디여?<5:9>

예문 (86a)의 ‘먼’은 ‘무엇’이라는 대명사의 준말인 ‘머’에 관형사형어미인 ‘ㄴ’이 연결된 형태이다. 또한 예문 (86b)는 표준어 ‘무슨’이 전설모음화한 형태이다. ‘무슨’은 관형사이고 ‘무엇’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서로 교체될 수 없는데 우리 방언에서는 ‘먼’으로 쓰이면서 교체되고 있다.

2.8 부사

부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한정하기도 하고, 시간이나 장소를 한정하기도 하고,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작품의 등장인물의 발화에 많이 쓰이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는 지역적 방언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어휘 가운데 하나이다. 작품에 나타나는 부사 가운데서도 빈도가 많은 부사는 의성 · 의태어이다(이태영 2006: 67). 비교적 우리 국어의 구어(口語) 속에 풍부히 발달돼있는 의성 · 의태어는 첩어와 준첩어로 나뉜다. 한 예로 ‘가분가분, 동글동글…’과 같은 의성 · 의태어를 ‘가분+가분, 동글+동글,…’처럼 전후형태로 나눈다면, 전후형태가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이런 형태는 첩어라 칭하고, ‘옥신각신, 갈팡질팡,…’과 같은 형태는 ‘옥신+각신, 갈팡+질팡…’으로서 전후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한 형태이기에 준첩어로 부른다.[54] 다음은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반영된 첩어의 예이다.

(87) 늙었으면 **싸게싸게** 꼬드라지기나 헐 일이제(5:333)
가뜩이나 **간당간당**해진 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2:9>
짚이 잠언 못 자도 요리 **자울자울**허면 그려도 고단헌 것이 풀리는 법이시.<8:296>
그려, 같은 말얼 혀도 그리 예절 챙겨감서 **조단조단** 의논지게 혀야제,<5:144>
그리 **건숭건숭** 생각지 말고 책장 넴기데끼 조단조단 생각혀봇씨요.<4:296>
나 맴이 워째 그러는지 아무리 **되작되작** 생각혀봐도 딱 잽히는 것 읎이 몰르겄고,<6:114>
혹여 암디서나 그리 입 **씸벅씸벅** 놀리다가는 영축읎이 빨갱이로 몰릴 것이다.<4:295>

위 예문 (87)에 반영된 첩어들을 살펴보면, '싸게싸게'는 빨리빨리란 뜻으로 약간 느낌이나 어감이 강한 것을 느낄 수있다. '간당간당'은 제 시간에 닿을지 말지 한 상태를 가리키고, '자울자울'은 조는 모양을 가리킨다. '조단조단'은 조목조목, 자세하게의 뜻이다. '건숭건숭'은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강 하는 모양을 나타낸다. '되작되작'은 어떤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차근차근'의 의미도 있다. 이 의태어에는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 등이 접미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므로 조어력이 강하다. 그리고, '씸벅씸벅'은 쑴벅쑴벅, 기탄없이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태백산맥>에 반영된 준첩어를 살펴보자. 다음이 그 예이다.

(88) 모강댕이 **잣지밧지**해갖고 삔대고 사는 꼴 보는 것도 환장헐 일이겄는디,(4:227)
야아, **시난고난**하는구만이라. (4:33)
그냥 **흘룽할룽** 세월만 보냄서 살제라.(8:87)
말도 체면 볼 것 읎이 **씹떡껍떡** 많이 해대는 눔이 결국 잘허게 되는 것 아니겄소?(8:299)
공연시 **씹떡껍떡** 주딩이 놀리덜 말어. (8:333)
삼동이야 대장님이 계획허고 예비허신 대로 **그작저작** 난다고 혀도,(3:263)

54) 의성 의태어(擬聲擬態語)는 onomatopoeia를 번역한 용어로 음성이 사물을 모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의성어, 의태어는 그 하위 개념이다. 의성어는 '철썩철썩, 왱강댕강'처럼 사물의 소리를 본딴 말이고, 의태어는 청각을 제외한 시각, 미각, 후각, 촉각 등에 의하여 모방한 단어이다. 의성 의태어는 감정적이고 유희적인 표현을 하는 데 주된 기능이 있고, 대부분 반복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심각하고 객관적인 기술을 요하는 문장에는 쓰일 수가 없다. 동요, 동시, 은어, 속어에 자주 쓰이는 의성 의태어는 감정적인 면이 다분히 있는 표현들이다(김성렬 2001: 149-150).

위 예문(88) 가운데 '잣지밧지'는 '잣대밧대'로도 쓰이는데, 주로 '-하다'가 접미되어 쓰이며 '거만스럽게 고개를 뒤로 젖힐 듯 말 듯하다'라는 의미로, 거만함을 나타낼때 쓴다. '시난고난'은 병이 심하지는 않으면서 오래가는 모양을 나타낸다. '흘룽할룽'과 '그작저작'은 그럭저럭의 의미이고, '씹떡껍떡'은 '불쑥불쑥'의 의미이다.

다음은 부사파생접미사 '-히', '-이', '-시'를 사용한 예이다.

(89) 비문히: 나이 잡순 노친네가 **비문히** 잘 알 것이라고 그리 새살 까고그려! <7:321>
찬찬히: 금세 뜨건 물 갖고 올 팅께 **찬찬히** 드시씨요.<2:107>
에진간히: 와따, 억지소리 **에진간히** 허씨요.<6:61>
갱신히: 노고단에나 올라야 **갱신히** 문턱 넘어스는 것잉께요.<9:334>

(90) 솔찬이: 감이 **솔찬이** 살이 올랐네그려.<5:290>
오늘도 **솔찬히** 찔랑갑는디, 싸게 모판부텀 뜨드라고.<9:141>
공연시: 집 생각 허먼 **공연시** 맘만 씨리고 기운만 빠지제<8:298>
맥엄씨: **맥엄씨** 산얼 무서바허고 겁묵을 일도 아니고, <7:209>

(91) 무담시: **무담시** 당신이 고상허시게 생겼구만요.<1:163>
무담씨: **무담씨** 아칙부터 사람 맘 요상허게 맹글지 말고<1:296>
보돕시: 순사덜 손에서 **보돕시** 살아나와갖고<2:20>

다음은 부사파생접미사 '-지게'를 사용한 예이다.

(92)a.건방구지게: 누군디 **건방구지게** 우리 감찰부장님 맨이름을 부르는겨?<1:243>
각단지게: **각단지게** 베락얼 열두 분썩만 맞어라.<4:140>
야! 사내끼 갖다가 **각단지게** 손 뒤로 묶어라.<8:218>
우리 부하새끼덜 붕알이 **각단지게** 얼음과자 되야불겄다.<4:13>
푸지게: 현 부자가 굿판을 **푸지게** 차려주기도 해서였지만<1:16>
야물딱지게: 빨갱이 뿌랑구럴 뽑자먼 야물딱지게 일을 혀야지라.<1:249>
허벅지게: 그것이 젖은 **허벅지게** 먹어대면서도<9:9>
찰방지게: 진작에 전라도말얼 그리 **찰방지게** 혔드라먼<4:14>
까라지게: 더욱 기운을 **까라지게** 하는 그 부질없는 생각을 들몰댁은<1:263>
걸판지게: 송별회를 굳이 남원장에서 **걸판지게** 벌이려는 것은<5:36>
똑바라지게: 우리가 눈 **똑바라지게** 뜨고 본 일로,<2:43>
끈덕지게: 그 별명은 소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끈덕지게** 따라다녔다.<8:199>

암팡지게: **암팡지게** 생긴 암탉이 느릿느릿 발을 옮기다가<9:8>
오지게: 니가 상사병에 걸려도 **오지게** 걸렸는갑다.<6:45>
심지게: 아덜 낳겄다고 맘 단단히 묵고 그저 **심지게** 물총질허소.<5:246>
b. 쎄빠지게: 당신 고상만 **쎄빠지게** 시켰구만<1:52>
뽕빠지게: 빨갱이허고 내통허다가 다 **뽕빠지게** 도망간 것 아니라고?<1:183>
좆빠지게: 빨갱이한테 쫓겨 **좆빠지게** 삼십육계 놓은 새끼가<2:154>
c. 의논지게: 예절 챙겨감서 조단조단 **의논지게** 혀야제,<5:144>
기운지게: 기왕지사 고상질로 나슨 것, **기운지게**나 혀야<5:288>
요령지게: 지가 **요령지게** 그 말얼 전허겄구만이라.<6:118>

예문 (92a)는 형용사를 부사로, (92b)는 명사+동사를 부사로, (92c)는 표준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결합의 파생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씨엉쿠(시원하게), 역부러[55](일부러), 새시로(사시로, 간단없이), 이적지(여지껏), 쪼깐(조금) 등이 있다.

55) 방언은 글이 아니고 말이기 때문에 비슷한 말이 뒤섞이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역부러'도 또한 '억지로'의 '억'과 '일부러'의 '부러'가 합하여 '역부러'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로는 '먼저'와 '처음'을 합하여 '먼첨'이라고 하고, '가깝다'를 '가찹다'라고 발음하는 습관이 계속되면서 '얕다'를 '얕찹다'라고 발음하는 현상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混態(뒤섞임)'이라고 한다(이태영 2000: 61)

Ⅴ. 결　론

본 연구는 문학방언 연구의 한 시도로서,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반영된 전남방언의 특징을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작가가 유년기를 벌교에서 보내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소설화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시간과 공간의 리얼리즘을 확보하고, 작품 속 인물의 성격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고, 또한 지역적 정체성을 살려주는 언어적 특성으로서 움라우트, 구개음화, 모음상승, 전설모음화, 원순모음화, 단모음화 등의 음운론적 측면과 조사와 어미의 문법 형태론적 측면, 어휘 형태론적 측면을 통하여 전남방언의 성격을 보여주는 음운론적 특성이 어느 정도는 밝혀졌다.

먼저, 움라우트현상은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태백산맥>에는 형태소 내부 즉 체언내부와 한자어, 용언 어간 내부, 부사에서 움라우트조건을 만족하면 그 생산성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움라우트 확대의 첫 번째 유형인 개재자음의 확대를 보여주는 '되련님(도련님), 개리-(가리-), 채리-(차리-), 건디리-(건드리), 디리-(드리-), 딜여(들이여), 끓이-(끓이-), 에지간히(어지간히)'에서처럼 개재자음이 [+coronal]인 /ㄹ/과 /ㅈ/인 경우와 통시적 변화를 거친 움라우트 형태 '웬수(<원슈)'도 발견되었다. 움라우트 확대의 두 번째 유형인 동화주의 확대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세 번째 유형인 유추적 확대로 '쬐끔(조금)'이 발견되었다. 움라우트 확대의 네 번째 유형은 순행적 움라우트인데 <태백산맥>에는 '치매(치마), 그러니께(그러니까), 맹길-(맹글-)'이 발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태소 경계에서 보다 형태소 내부에서 움라우트는 더 용이하게 실현되는데 이 소설에서도 형태소 내부 보다는 경계에서 움라우트가 적게 실현되고 있었다.

구개음화현상은 전라·경상방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점진적으로 북부지역으로 확산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고에서는 ㄱ>ㅈ, ㄷ>ㅈ, ㅎ>ㅅ으로 되는 양상만을 <태백산맥>을 통해 분석하였다. /ㄱ/구개음화는 체언, 용언, 부사, 접사에서도 발견되었고, /ㄷ/구개음화는 서북 방언을 제외하면 형태소 내부에서는 이미 완결되어 형태소나 단어가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에 표준어로 인정되어 '짐치(딤치)'형태만이 형태소내부에서 '부치-(붙이-)'형태만이 형태소 경계에서 발견된다. /ㅎ/구개음화로는 전남방언의 전형적인 형태인 '성(형), 숭(흉), 심(힘), 쎄(혀)'가 발견된다.

모음상승은 ‘에>이, 어>으, 오>우’가 되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에>이’와 ‘어>으’ 현상은 음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에>이’는 음장이 음운론적 기능을 발휘하는 어두 위치에서 발생하여 음장이 그러한 기능을 갖지 못하는 비어두 위치나 문법형태소에까지 확대 적용된 예를 확인하였다. ‘오>우’는 18세기 후기 국어에서 음장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비어두 위치에서 발생한 후 규칙의 점진적 확산을 경험하여 <태백산맥>의 비어두 위치의 어휘 형태소에서도 다소 발견되었다.

전설모음화현상은 <태백산맥>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만 발견되어진다. 형태소 내부 비어두 음절·어두 음절의 /으/가 각각 전설모음화 된 예 이외에도, ‘목심(목숨), 오짐(오줌), 장시(장수), 가리(가루)’에서와 같이 다른 음성 변화에 의해 생성된 이차적 환경에도 적용되는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원순모음화현상은 제1음절 脣子音 뒤의 ‘ · ’가 ‘ㅗ’로 변화한 것으로 <태백산맥>에서도 ‘몬지(塵), 봂-(踏), 볽-(明), 몰르-(干), 포도시(僅), 뽈-(吮), 뽀짝(乾), 폴(腕), 폴(赤豆), 폴세(己), 포리(蠅), 폴-(賣)’ 등으로 활발하게 실현된다.

단모음화현상은 <태백산맥>에서는 /j/탈락인 ‘가먼(가면), 살먼(살면), 타먼(타면)’ 형태와 /w/탈락인 ‘머(뭐), 바라(봐라)’형태가 발견된다.

문법 형태론적 측면에서는 <태백산맥>에 반영된 전남방언의 조사와 어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사는 다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누어 실현양상을 관찰하였다. 격조사는 비교격만 제외하고는 표준어와 음운현상만 약간씩 달리할 뿐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주격은 ‘이(이가)/가’, 목적격은 ‘-얼/-럴’, 여격은 ‘-헌티’, 속격은 ‘에가’, 공동격은 ‘-허고’, 비교격은 ‘-허고/-랑, -맨치/-만, -보담/-보덤, -맹키/-맹이, -겉은’, 호격은 ‘-아/-야’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인다. 보조사 역시 표준어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주제의 ‘-언/-넌’, 도급의 ‘-꺼정/-꺼지, -할라’, 역시의 ‘-도’, 강조의 ‘-이사/-사’, 출발의 ‘-부텀’ ,각각의 ‘-마동’, 일양(一樣)의 ‘썩’, 단독의 ‘만’으로 실현되고 있다. 접속조사로는 표준어의 ‘와/과’에 해당하는 ‘-허고, -랑’이 발견된다.

한편 <태백산맥>에 반영된 어미는 다시 종결어미, 연결어미, 선어말어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종결어미는 상대높임의 등급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하는데, 전남방언의 상대높임에 따른 실현양상을 격식적인 상황의 ‘허씨요체, 허소체, 해라체’와 비격식적인 상황의 ‘해라우체, 해체’의 등급에 따라 분석·확인한 바 있다.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태백산맥>에 대등적 연결어미로는 '-은서/-음서, -시로/-스롱'의 형태가 발견된다. 종속적 연결어미로는 조건의 '-으면,-음사', 인과의 '-으니께/-응께/-응게, -간디, -니라고', 양보의 '-드락도, -지만서도', 상황의 '-등마', 목적의 '을라고', 유사의 '-디끼/-대끼', 도급의 '-게끄름'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로 표준어의 '-아, -지, -지도, -하게'는 각각 '-야, -덜, -토, -허니'로 실현되었다.

선어말어미는 높임법에 관한 것에 '-씨-, -싯-'이, 시상(시상)에 관한 것에는 회상의 '-드-', 과거의 '-얐-, -엤-', 추정의 '-겄-'이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어휘 형태론적 측면에서는 품사별로 단일어, 파생어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서 <태백산맥>에 반영된 전남방언의 생산적인 반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명사 파생접사로는 '-질, -머리, -대가리, -에기, -아지, -아리, -악지, -앙구, -댕이, -태기/ -탱이/ -탕구, -배기/-뱅이'의 주로 비하의 의미를 가진 형태가, 동사 파생접사로는 '-하다, -기리다'의 형태가, 형용사 파생접사로는 '-시럽다, -하다, -읎다/ -있다, -지다, -지근하다, -잖다'의 형태가, 부사 파생접사로는 '-이, -히, -게'의 형태가 표준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선한 결합 모습을 보여 활발한 생산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태백산맥>이 벌교라는 공간 속에서 전남방언의 사용으로 이념의 엇갈림 속에 겪어야 했던 민중과 지식인의 고통을 더욱 사실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학방언의 연구를 통하여 독자가 문학작품 속의 방언을 알고 있다면 작품 이해의 폭이 훨씬 더 깊고 넓어질 수 있음을, 앞으로 더욱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조정래(2003),『태백산맥』1권~10권, 해냄 출판사.

2. 사전류

김민수(1997), 『우리말 어원 사전』, 태학사.

이기갑 외(1998a),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3. 논문

강희숙(1994), 음운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남 장흥 방언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1995), 전남방언의 준말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34, 한국언어문학회.

_____(1999), 전설모음화의 발달과 방언분화, 『한국언어문학』44, 한국언어문학회.

_____(2002), <천변풍경>의 음운론, 『국어학』40, 국어학회.

_____(2003), 김용택 시어의 방언 문법론, 『우리말글』28, 우리말글학회.

_____(2004a), 이문구의 소설과 움라우트, 『우리말글』31, 우리말글학회.

_____(2004b), 백석의 시어와 구개음화, 『한국언어문학』53, 한국언어문학회.

_____(2005), 고모음화의 실현과 방언 분화,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_____(2006), 소설 <태백산맥>의 화용론, 『한국언어문학』57, 한국언어문학회.

고형진(2004), 방언의 시적 수용과 미학적 기능 -영랑과 백석과 목월의 시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2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권영민(1995), 역사적 상상력의 집중과 확산 -조정래론-, 『작가세계』26, 세계사.

기세관(1981),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1983), 전남 북서부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국어국문학』90, 국어국문학회.

_____(1985), 중부방언과 전남방언의 모음대응에 대한 통시적 고찰, 『순천대학논문집』4, 순천대학교.

_____(2004), 광양 방언의 음운론과 형태론, 『배달말』35, 배달말학회.

김귀복(2006), 조정래 소설 『아리랑』에 나타난 전북방언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승종(1998), 소설의 리얼리티와 방언의 효과 -<녹두장군>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8, 한국현대소설학회.
김아정(2003), 지역 문학작품을 통한 국어교육의 내용연구 - 최명희의 <혼불>을 중심으로 -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진(1998), 구개음화의 층위와 조건에 대하여, 『어문논집』37, 안암어문학회.
김완진(1971),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10.
_____(1975), 전라도 방언 음운론의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하여, 『어학』2(전북대).
김용직(1996), 방언과 한국문학, 『새국어생활』1, 국립국어연구원.
김웅배(1993), 전남방언의 연결어미 연구, 『한국언어문학』31, 한국언어문학회.
김윤식(1987), 태백산맥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서울대출판부.
김정우(2004), 영화에서 사용된 방언의 효과 연구, 『한국학연구』2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주원(1990), 국어사 연구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민족문화논총』1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김주필(1999), 구개음화, 『새국어생활』9, 국립국어연구원.
김태엽(2006a), 현진건 소설의 방언 연구, 『국어국문학』142, 국어국문학회.
_____(2006b), 김동리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 『우리말글』38, 우리말글학회.
_____(2007), 이상화 시어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 『우리말글』41, 우리말글학회.
김혜영(2001), 지역문학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13, 국어교육학회.
김흥수(1985), 소설의 방언에 대하여, 『국어문학』1, 국어문학회.
노재환(2000), <혼불>에 반영된 전라방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병란(1970), 현대시에 나타난 방언의 시적 효과, 『師大論文集』1,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박경래(1999), 움라우트, 『새국어생활』3, 국립국어연구원.
배주채(1993), 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 『주시경학보』11, 주시경연구소.
백두현(1988), ‘ㅇ 오 으 우’의 대립관계와 원순모음화, 『국어학』17, 국어학회.
_____(1992), 원순모음화 ‘ㆍ>ㅗ’型의 분포와 通時性, 『국어학』22, 국어학회.
설준규(1989), 대화론인가 대화주의인가 -바흐찐의 언어이론과 소설이론-, 『창작

과 비평』63, 창비.
성희제(2000), 움라우트현상의 유형 연구, 『목원국어국문학』6, 목원대학교.
_____(2002), 자음에 의한 순행적 모음동화현상 연구,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문학회.
_____(2001), 원순모음화 현상 연구, 『우리말글』23, 우리말글학회.
신승용(2004), ‘ㅓ’ 원순모음화 현상 연구-경북방언을 대상으로, 『국어학』44, 국어학회.
신증진(2001), 국어 움라우트 연구사, 『울산어문논집』15,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신희삼(2006), 한용운 시의 언어적 분석 연구, 『한국어 의미학』20, 한국어의미학회.
안병희(1957), 重刊杜詩諺解에 나타난 t口蓋音化에 대하여,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文』
오종갑(1987), 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 『한민족언문학』14, 한민족언문학회.
육효창(2006), 구개음화에 대한 일고찰, 『동국어문학』17·18,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윤석민(2006), 소설과 방언 그리고 텍스트언어학 -『혼불』의 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42, 국어국문학회.
위평량(2000), 전남 · 경남 접경 지역의 언어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2), <토지>의 방언적 성격,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_____(2003a), 방언의 어원-전남방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65, 한국국어교육학회.
_____(2003b), 방언의 어원2-전남방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65, 한국국어교육학회.
_____(2004a), <태백산맥>과 <혼불>의 언어비교, 『한국언어문학』53, 한국언어문학회.
_____(2004b), 전남방언의 어원 수제, 『인문학연구』33,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개영(1998), <태백산맥>에 나타난 방언 어휘 및 관용 표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근열(1995), 경남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연구,『우리말연구』1 , 우리말학회.
이기갑(1984), 전남동부방언의 성격, 『언어학』 7 한국언어학회.
_____(1987), 전남방언의 토씨체계, 『국어국문학연구』 (장태진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삼영사.
_____(1991), 표준어와 서남방언, 『새국어생활』3, 국립국어연구원.
_____(1997), 한국어 방언들 사이의 상대높임법 비교 연구, 『언어학』21, 한국언어학회.
_____(1998b), 서남 방언, 『새국어생활』8, 국립국어연구원.

_____(1998c), 전남방언의 상대높임법, 『한글』240/241, 한글학회.
_____(2005a), 전남방언의 파생접미사(Ⅰ) -명사와 동사의 파생을 중심으로-, 『언어학』41, 한국언어학회.
_____(2005b), 전남방언의 파생접미사(Ⅱ) -형용사와 부사의 파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54,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이돈주(1987), 전남 방언의 특징과 그 연구, 『국어생활』8, 국어연구소.
이동석(1997), 구개음화의 어휘화와 'ㅅ' 종성에 대하여, 『한국어학』6, 한국어학회.
이병근(1976),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72·73, 국어국문학회.
이상규(2001), 문학방언 연구의 가능성과 그 방향,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이승재(1977), 남부방언의 원순모음화와 모음체계, 『관악어문연구』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_____(1998), 표준어와 방언, 『국어문화학교』1, 국립국어연구원.
이익섭(1991), 한글의 문자론적 위상, 『언어』16, 한국언어학회.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_____(1997), 채만식 소설 <천하태평춘>에 나타난 방언의 특징, 국어문학, 국어문학회.
_____(2004a), 문학 작품과 방언 연구, 『한국어학』 25, 한국어학회.
_____(2004b),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의 기능, 『어문론총』41, 한국문학언어학회.
_____(2006), 방언 어휘의 자료 정리와 연구 방법 -문학작품의 어휘를 중심으로-, 『방언학』4, 한국방언학회.
임칠성(2001), 지역어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13, 국어교육학회.
장운혜(2008), 중세국어 유성 마찰음의 변천과 방언 분화: /ㅸ/과/ㅿ/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창영(2004a), 시어의 전략적 의미와 미학 -1930년대 시인들의 방언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53, 한국언어문학회.
_____(2004b), 시 교육에서 방언 사용의 함의, 『국어국문학』138, 국어국문학회.
정영인(1994), 근대국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연구, 『국어문학』29, 국어문학회.
정혜숙(2003), 역사 소설 <태백산맥>에 나타난 인물 유형 분석,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오현(2006), ㄷ구개음화 발생의 역사적 전개 과정, 『동남어문논집』22, 동남어문학회.
조창규(1996), 18세기 중엽 이후 전남 방언의 모음 상승과 모음 중화, 『국어국문학』116, 국어국문학회.
최전승(1989), 국어 움라우트 현상의 기원과 전파의 방향, 『방언』, 태학사.
_____(2000), 시어와 방언, 『국어문학』35, 국어문학회.
_____(1999), 원순모음화 현상의 내적 발달과 개별 방언 어휘적 특질, 『국어문학』34, 국어문학회.
한영목(2005), 이문구 소설어와 충남 방언, 『우리말글』35, 우리말글학회.

4. 단행본

강규선 · 황경수(2003), 『중세국어 문법론』, 도서출판 청운.
강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고영근(2006),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집문당.
고영근 · 남기심(199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고은 · 박명림외(1991),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권영민(1997), 『권영민 교수의 태백산맥 다시읽기』, 해냄 출판사.
김병제(1988), 『조선 언어지리학 시고』,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평양.
김성렬(2001), 『국어방언연구』, 국학자료원.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국어학회.
_____(2003), 『국어방언문법』, 태학사.
이기갑 외(1998d), 『호남의 언어와 문화』, 백산서당.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이기문 · 이상규외(2001), 『문학과 방언』, 도서출판 역락.
이돈주(1979), 『전남방언』, 형설출판사.
이병근 외(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이익섭 외(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태영(2000), 『전라도 방언과 문화 이야기』, 신아출판사.
정용호(1988), 『함경도방언 연구』, 교육도서출판사.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최재희(2004), 『한국어 문법론』,태학사.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 현상과 역사성』, 한신문화사.
한기찬 역(1980), 보리스 토마셰프스키, 「주제론」, L.T 레몬& M.J 레이스 편, 『러시아 평식주의 문학이론』, 월인제.
한승옥(2006), 『근현대 작가 작품론』, 제이앤씨.
황광수(2000), 『소설과 진실-조정래의 소설세계』, 해냄출판사.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전공	학 번	20058215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양복순	한문: 梁福順		영문: Yang, Bok-Soo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80-19번지				
연락처	010-5196-0575		E-MAIL: nasanri@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태백산맥』에 반영된 문학방언 연구 영문 : A Study on Literature-Dialect Reflected in 『Taebacksanma다』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년 월 일

저작자: 양 복 순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